



9 772383 813003 12
ISSN 2383-8132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 석도국제페리 김상겸 대표
- 무지개할어수족관 정태호 사장 부부
- 정원카페 미라벨 김입분 대표
- 오존베이커리 여찬기·김민섭·이인희
- 도도랑 족발·보쌈 군산본점 박준규
- 의상 대여점 모던타임스 박세진 매니저
- 박용배 프로골퍼
- 제2회 손편지축제 현장 스케치

시민과 함께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사람으로 세상을 잇다

새로운 시각은 어디에서 올까요?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이 될까요?
미래가치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대학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교육혁신의 선두!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
- 국립대학육성사업 선정
-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 선정
- 산업계 관련 대학평가 4개 분야 최우수

글로벌 인재의 요람!

- 교육국제화역량인증대학 선정
-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 신재생에너지사업(대형 해상풍력 터빈 해상실증 기술 개발) 선정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ww.kunsan.ac.kr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세상의 모든 보험!

최고의 전문가들이 궁금함에 답을 드립니다.

▼
보험 미지급 건
최준호 대표
010-7467-7483

뇌질환, 심장질환
자살
기타 보험사 지급 거절 건

▼
마루 노무사
송충엽 소장
010-4650-8236

산재 (수협산재) (과로사 등)
노무관리
4대 보험 관리

▼
손해 사정사
오창교
010-4900-1010

개인 후유장애
교통사고 보험금 산정
암 진단 (D37.5진단 분쟁 등)
일상배상 / 영업배상

▼
GA지사
박남혜 대표
010-2396-5635

보험 증권 분석 / 증권 관리
보험 청구 / Solution
상품 선택 조언
보험보상전문상담



+ 소정운 변호사
010-5400-3498

자동차 대인 사고
장기(보장성)보험
산재 / 근재

5년 이내 암 진단만 아니라면
보험은 준비 할 수 있습니다.

GA지사 박남혜
010-2396-5635

월10만원소비
브랜드체인지
+
추천 2인

즐거운 소비가 소득으로 창출되는 라이프스타일!
신뢰의 기업 교원과 든든한 미래준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화 한통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 두가지 조건으로
평생 함께 할 부업을 만나세요.

www.theorm.kr
군산 박남혜 010-2396-5635

KYO
WON 교원



상상을 향해!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P.S NEW SHIDAO PEARL / P.S GUNSAN PEARL
DAILY SERVICE



석도국제훼리(주) www.shidaoferry.com

군산 tel. 063-441-1200 fax. 063-441-1220
석도 tel. +86-631-728-6666 fax. +86-631-728-9399
서울 tel. 02-725-7811 fax. 02-725-1671
하역/운송사(주)제범 tel. 063-461-1803 fax. 063-461-1836

죽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검도는 단순히 때리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검도의 최종 목적은 인격형성을 추구하는 무도이기 때문에 기능 향상만을 위해 수련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검선을 일치시킴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무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체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장_진인하 7단

주소_전북 군산시 미장안길 50-13 (미장동) 통근타운 4동 301호

전화_(063)466-7377 팩스_(063)466-7377 이메일_kumdojin77@naver.com

사진제공_박진영

이제는 아이젠카에서!



군산지사장 이복
010-5265-5061

아이젠카 견적 업체 이달의 **특가 상품 이벤트**입니다.

월렌트로 최저가 선언 취/등록세, 자동차세, 보험료 별도 납부 없음.

특가 상품은?

이번달 한달동안 업체에서 제공할수있는
최저가 견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특가 상품은 제조사및 캐피탈사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 마감될수있습니다.

아이젠카만의 차별화

1. "책임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계약 관리 팀 별도 운영
 - 계약이후 끝이 아닌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만족 실현
 - 민원 관련 고객센터 운영으로 고객서비스 실현
2. 월 납부로 최저가로 견적을 제공할수있습니다
 - 한개업체 견적이 아닌 복수 견적중 최저가 업체 견적을 비교 해드리겠습니다.
3. 아이젠카만의 서비스
 - 자동차 전문 상담인력 배치로 고객이 원하는 정확한 정보전달 제공
 - 질문을 남기시거나 문자서비스, 이메일 답변등을 통해서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실수있습니다
4. 국내 렌트사및 캐피탈사 제휴를 통해 최저가 차량만을 제공하고있습니다.
 - 10여개의 렌트사및 20여개의 캐피탈을 통해 믿을수있는 다양한 차량들을 고객님의 맞춤 제공해 드리고있습니다
5. 차별화된 차량 비교검색



www.newgunsan.kr



새군산신문

NEW GUNSAN WEEKLY

새로운 시민의 대변자

Add. 전북 군산시 장미길 27 장미빌딩

Tel. 063-445-4700

Fax. 063-442-3883

장미칼럼

흔들리지 않게

전 국민의 눈이 쏠렸던 '조국대전'. 논란과 격동이 지났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그를 임명했다.

어쨌든 넘어야 할 산이었다.

야당은 즐기치게 부도덕성을, 여당은 사실이 아님을 강변했다. 청문회가 정치 선전의 장으로 변질 되었으며, 여·야 각각의 프레임에 갇혀 정말로 중요했던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지 못했다. 국가 위난의 시기에 이런 정쟁으로 국력을 빼앗기다니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제2차 '조국대전' 이 불 보듯 하다.

가득이나 냉소 받았던 정치권 전체가 '정치 부재'의 현실 앞에 더욱 초라한 모양새이다. 이런 민심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민주당은 물론이고 조국 장관 또한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야당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법개혁을 앞둔 민주당 정권으로서 접을 수 없는 카드였던 조국. 그만큼 절박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클 것이다. 그 것은 아마도 국민들의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조국대전은 아니지만 군산에서는 요즘 군산사랑상품권 논란으로 뜨겁다. 상품권의 가치는 할인율이 가능하다.

10% 할인율에 사는 분도 많았지만 1만여 가맹점이 호응할 정도로 무너지는 소비심리를 일으켜 세우는 나름의 역할을 했다. 군산시는 재정을 투입하면서라도 그 열기를 이어가려고 한다.

추석을 앞두고 종이상품권이 나오자마자 매진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상이다. 아마도 추석 소비 심리 때문이란 짐작이다.

그런데 군산시가 출시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또 다시 논란이 많다. 가맹점들이 회피하고 있으며, 사용과정에서의 불편함 때문에 가입자들이 고개를 흔들고 있다는 소식이다.

세상일이란 안팎이 존재하며 찬반이 공존한다. 누군가 흔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를 외치며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조국대전'도 그렇고, '상품권 논란'도 그렇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 또한 잃지 말아야 한다. 기왕에 내친걸음이다. '조국'은 조국대로, '상품권'은 상품권대로 한발씩 나아가라.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쪽을 함께 바라보길 바란다. 그리하여 '정말로 잘했노라'고 새겨질 수 있도록.



편집장_채명룡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월간지로서 자택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본 지 마지막페이지에 CMS 구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180-087549
예금주_ 이진우 (아이씨엠)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282pyk@hanmail.net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282pyk@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 후원 업체

- 오죽일식_ 식사권 / 063-464-5625
 - 발렌타인피자_ 불고기피자 테이크아웃 / 063-442-4886
 - 노가리&비어 (수송점)_ 세트안주 이용권 / 010-6542-5782
 - 곰창이최고예요 (수송점)_ 곰창 1인분 이용권 / 050-7900-0803
 - 도마 (수송점)_ 돼지한마리 세트 / 063-471-0023
 - 바나나팩토리_ 커피 음료권 / 063-452-9479
 - 8월의크리스마스_ 커피 음료권 / 010-8928-3481
 - 소셜여행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63-446-9466
 - 달 커피샵_ 커피 음료권 / 010-9548-3383
 - 철길마을 우리문방구_ 사진매직거울 / 010-3556-2564
-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맥군의 오타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와 주소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282pyk@hanmail.net Fax_ 063) 446-1856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안아라	조용진	최희조	송수연
김선영	임성수	박지은	배선주
김성광	신윤주	정채림	박연지



Vol. 102 | 2019.09



발행인	이진우	jay0810@hanmail.net
편집장	채명룡	ml7614@naver.com
디자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이경호	kyungho159@naver.com
주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편집위원	허종진	hj1488@hanmail.net
편집위원	김혜진	kimhyejin0324@hanmail.net
편집위원	박청숙	njpcslife@gmail.com
편집위원	신재순	speedal@jbedu.kr
편집위원	이현웅	gunsanmusic@daum.net
편집위원	김정인	jbct20102@jbct.or.kr
컬럼니스트	이복	bok9353@hanmail.net
컬럼니스트	남대진	bitsori454@daum.net
컬럼니스트	은승조	gsforum@hanmail.net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영인쇄 (063)446-7801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 번호_ 군산 라 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드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아이와 어른을 위한
신재순 시인의 동시로 건넌 안부_7

들깨 모종 내기

송진권

들깨 모종 내고 왔더니
엄마도 들깻내
아빠도 들깻내
내 손에도 들깻내 난다
깻순 나물에
깻잎 김치
들기름 바른 김에
들깻단 때서 지은 밥
들깻자루 쏜은 밤하늘 별에도
온통 들깻내투성이다

- <새 그리는 방법>(문학동네 2014)

동심을 노래한 시 중 어린이가 쓴 시를 어린이시라고 하고 어린이시와 구별지어 어른이 쓴 시는 동시라고 합니다. 여기 어른이 되고 싶은 아이와 아이가 되고 싶은 어른이 함께 읽으면 좋을 동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안부를 건넵니다. 편안하신지요. 그리고 부디 편안하시길요.

마흔이 넘은 동료직원이 말합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먹는 깻잎이 들깻잎이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것도 TV를 보다 문제가 나와서요. 우리가 먹는 깻잎은 들깻잎일까요? 참깻잎일까요? 하는...”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지만 모르는 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일화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골라본 동시입니다. 들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버릴게 없는 유용한 농작물이지요. 무주에서 지내던 한 때, 이웃이 보내온 단풍깻잎김치도 잊을 수 없답니다. 단풍나무 물들듯 노랗게 물든 깻잎으로 담은 깻잎김치가 얼마나 맛있었지요~ 반면 중국 사람들은 깻잎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국민에게는 소울푸드처럼 정겨운 들깻잎의 모든 것. 오늘 들깻잎 반찬 어떠세요?

신재순
시인 / 한국동시문학회, 전북작가회의 회원





한중 바닷길 교역의
선두 기업
'석도국제Ferry'(주)

김상겸 대표이사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오식도동 외항의 국제여객터미널과 중국의 석도(시다오/Shidao)를 왕래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군산과 중국의 바닷길을 가장 가까이 이어주는 석도국제훼리. 본래 경상도 사나이지만 군산이 좋아 정착했다는 김상겸 사장(67)은 2008년도 여객선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 11년간 운송한 승객 연인원만 해도 수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양국의 우호 증진과 교역의 튼실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든직한 기업인으로서 매세나 운동 및 장학사업 등으로 남다른 군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대기업 상선 회사원에서 선박 사업가로

본래 마산 출생인 김 사장은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 졸업 후 국내 굴지의 상선회사에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직, 1991년 이후 이후 개인 사업과 전문경영인을 거쳐 2008년 1월 석도국제훼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김 사장이 사업지로 군산을 택한 것은 당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 대량수송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왕이면 본인의 전공 분야로서 평소의 꿈이었던 선박 관련 사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업지를 검토하다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제일 가까운 곳이 한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군산임을 알게 되었고 양국 간 교역에 있어 향후 전망도 밝다는 생각에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이다.

군산은 생애를 다하고 싶은 제2의 고향

사실 김 사장은 군산에 전혀 아무런 연고도 없다. 그런 그가 군산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고향의 친구나 지인들은 무척 의아해 하고 만류가 컸다 한다. 왜 하필이면 전라도냐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김 대표는 경상도 사람들의 호남에 대한 지역감정이 그토록 무조건적이라는데 놀랐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군산에 사업의 터전을 잡느라 많은 주변 지역을 돌아보며 만나본 군산 사람들은 자신이 경상도 사람이라는 데 대해 전혀 배타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친절함으로 대해주는가 하면 도시의 자연 경관이며 먹거리 등도 너무 여유롭고 좋아 경상도와는 모든 면에서 다름을 실감함으로써 사업지로 자신이 구상했던 여건과 부합했다. 그래서 사업가는 어디가 됐건 이윤을 따지는 것이지 가득이나 작은 나라에서 서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소모적 지역감정 따위가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말로 그들을 설득했는데 역시 군산에 정착하길 잘 했다는 초심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다. 그는 아예 군산에 뿌리를 박고자 몇 년 전 성암면 도암리에 여유로운 면적의 땅을 구입, 자택을 지어 이주했는가 하면 고향의 선영 산소도 최근 임피로 이장했을 정도로 이제는 군산 사람이 다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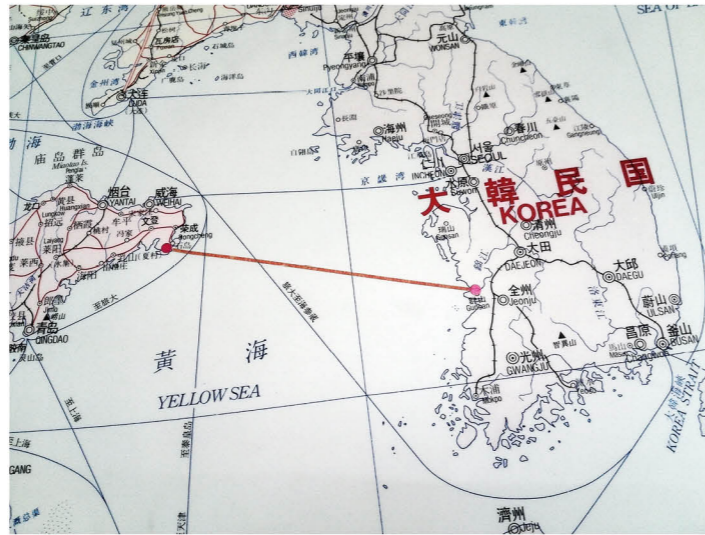


로비 전경

남다른 결혼 일화

김 사장은 선본지 단 일주일 만에 혼례를 치렀을 정도로 파격적 결혼 일화를 가진 것으로도 알려진다. 내용을 들어보니 28세 되던 어느 날 어머니가 6장의 신부감 사진을 내보이며 맘에 드는 사람 고르라 하시는데 사실 그때 결혼 생각이 전혀 없던 시기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집요한 종용에 마냥 싫다 할 수만은 없어 일단 그 사진 중 한 여인을 만나보기로 약속을 잡았다한다. 그런 경우 대개 호텔 레스토랑이나 커피숍 등을 만남 장소로 하는 게 일반적이는데 그의 생각은 달랐다. 몇 마디 대화로 상대에 대해 알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무의미한 장소보다는 상대의 집을 방문해서 가정의 분위기나 형편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게 옳다는 생각에 의향을 전달했더니 그쪽에서도 흔쾌히 응해주었다. 그 여인은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고 집안 분위기며 심성도 좋아보였다. 다음날은 그 여인이 김 사장의 집을 방문했다.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여인 역시 김 사장 가정의 형편과 가족 분위기 등을 눈여겨 보는듯했다.

이렇게 선을 보았지만 결심이 서질 않았다. 그러나 외출 중 우연히 만난 은사께서 특별히 싫은 면만 없다면 결혼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부부를 이루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해서가 아니라 살면서 맞춰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고, 또 부모님께서 권할 때에는 상대측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아볼 것은 다 알아봤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을 정하고 혼인 하겠다 했더니 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혼수 준비하고 혼례 날짜를 잡는 바람에 단 3번의 만남 끝에 일주일 만에 혼례를 치렀다. 경상도 사람들 성격이 급하고 화끈하다고는 하지만 그 자신이 생각해도 이토록 속전속결의 결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다는데 1남 1녀를 두고 40여년을 부부로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결혼을 후회해본 적이 없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마음이 변치 않을 만큼 다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졸속 결혼이라 해서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고르고 또 고르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결혼이 오히려 파경을 맞는 경우도 많으니 우리네 인간사, 결말을 알 수 없는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도 해 본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최단코스가 바로 군산과 석도



상상
그 이상을 향해!

SHIDAO INTERNATIONAL FE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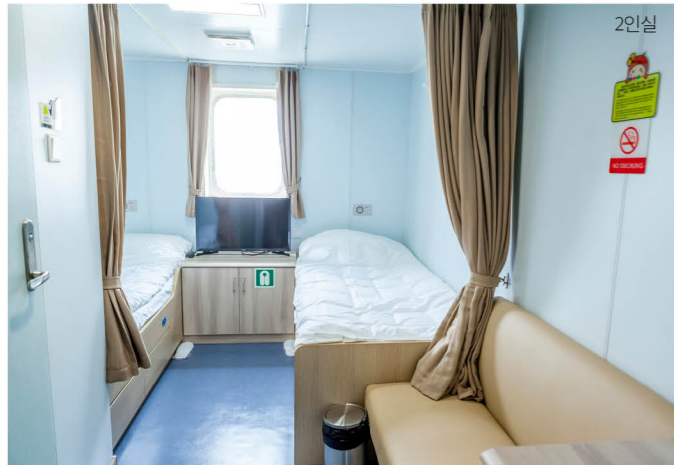




VIP룸



VIP 식당



2인실



공연장



4인실



면세점



6인실



대식당 및 공연장

사업개요 / 2척의 신형 고급화된 선박으로 새로운 서비스

석도국제해리는 2008년도 사업 초기 20여년 된 17,000톤급 일본 선박 1척을 들여와 군산항과 석도항을 주 3회 운항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당시 선령(船齡)상 운항 수명을 향후 10년 정도로 내다보았던 터라 선박의 교체는 필수적이었고 그간 꾸준히 준비한 끝에 작년 4월 드디어 신형 20,000톤급으로 고급화된 신조선 '뉴 시다오 펄(NEW SHIDAO PEARL)'호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또한 올해 7월 '시다오 펄'호와 자매선으로 역시 20,000톤급의 신조선 '군산펄(GUNSAN PEARL)'호를 들여와 두 척 각각 주 6항차 운항함으로써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는데 신조선 1척의 도입가격만 해도 약 600억 원으로 도합 1,200억 원이 투자되었다.

1척당 승선 정원 1,200명에 화물 218TEU 규모인 석도국제해리는 매일 평균 800여명의 여객 운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의 운송 실적만 보더라도 여객의 경우 2017년도 184,046명, 2018년도 238,793명(30%증가), 2019년도 올해의 경우 364,000명으로 이는 약 52%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수치이다. 또한 화물은 2017년도 37,216 TEU, 2018년도 44,056 TEU(18%증가), 2019년도 52,000 TEU(18%증가)에 상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화물 수송은 군산항 전체 물동량의 60%에 달한다. 선박을 통한 주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과 LCD 등 전자제품 및 식료품이 주종을 이루며 승객 비율은 중국인 80%, 한국인 20%로서 상인과 여행객이 각 50%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위해 1척당 60여 명의 승무원과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해주는 8명의 조리사들, 그리고 육상 한국인 직원 40명(군산35, 서울5)과 중국 35명의 직원들이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근무 중이다.

달라진 중국, 예전의 고정관념은 금물

돌이켜보면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국과 중국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진 것은 1992년도, 이후 27년의 세월이 이르고 있다. 공산화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됐던 중국은

일찍이 등소평이 천명한 소위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자본주의 체제든 공산주의체제든 인민만 잘 살게 하면 된다는 말)을 캐치프레이즈로 경제 분야에서만은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 눈부신 경제 발전을 추구하게 되는데 지금은 미국과 G2, G1을 다룰 정도로 군사 및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인에게 중국은 가난하고 환경과 위생이 열악하고 값싼 짜퉁이나 만드는 불량품의 나라로 인식하는 정서가 팽배한 게 사실이다. 그러한 오해는 중국이 얼마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달라졌는지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교육이나 문화예술 등의 교류 차 빈번하게 드나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의 중국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회 각 부문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놀랍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일례로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환경규제를 한국보다 더 엄격히 적용하는 정책을 펴 현재 웬만한 도시는 도로의 청소 및 조경 등이 한국보다 뛰어난 정도이고 선박에서 사용하는 벙커C유 연료도 공해물질로 규정, 자국 영해에서는 허용치 않을 정도로 엄격하다. 또한 도시가 청결해지면서 마사지 등의 퇴폐업소가 사라져가고 건전한 문화시설 등이 늘고 있는 추세로서 치안문제만 해도 CCTV설치가 확대되면서 안정화를 맞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 수단이 대폭 시행된 이후 굳이 현금 지참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절도나 강도 범죄도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고속도로통행료나 호텔비, 식대 등도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토록 한국과 특별한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발전해가는 중국은 이제 경제규모로나 인구로나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질 낮은 공산품이 시중에 나도는 것은 우리 측 업자가 이윤을 남기고자 싼 물건만 납품 주문하기 때문이란다 심지어 과거 한국 제품을 짜퉁으로 만들어 팔던 중국이 이제는 오히려 한국인이 중국 제품을 한국산이라고 속여 파는 웃지 못할 상황도 있다는 말은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 저들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되새겨야 할 말이 아닌가 한다.



터미널 공간 확충 및 출입국 수속 시간 단축 시급

신조선 두 척으로 매일 운항체제로 변경된 이후 화물과 여객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에 화물 운송을 위한 군산항의 부대시설은 날로 부족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확충이 절실해지고 있다. 또한 여객의 편의를 위한 터미널 공간 부족과 입출국 수속 체증으로 승객 입장에서 커다란 시간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문제이다.

대책 및 전망

군산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조속히 개선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늦어질수록 타 항만으로의 이탈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화물 측면에서는 특송화물 통관장 시설의 설치와 더불어 냉장·냉동화물의 보관 창고 건설이 절실하며 터미널 공간 확충과 출입국 수속 시간 단축의 우선적 시행이 시급해짐에 따라 관계 기관에 애로 사항을 피력, 조속한 해결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어 관계기관에서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향후 전망은 연 20% 이상의 화물량 증가와 연 30% 여객 증가를 추산하고 있는데 예상이 맞게 되면 2013년경에는 신조선 투입자금 과다로 인한 자금 압박에서 벗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전북도내 및 인근의 관광 자원과 부대시설이 확충되면 보다 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석도국제훼리로 떠나는 중국 관광지(일정 자유 구성 가능)

석도 - 적산법화원(장보고 유적지)

위해 - 환치루공원, 선고정 옥테마 사당, 화하성풍경구, 화하쇼(또는 해저세계, 정원함), 해변공원

남산 - 남산대불, 중화역사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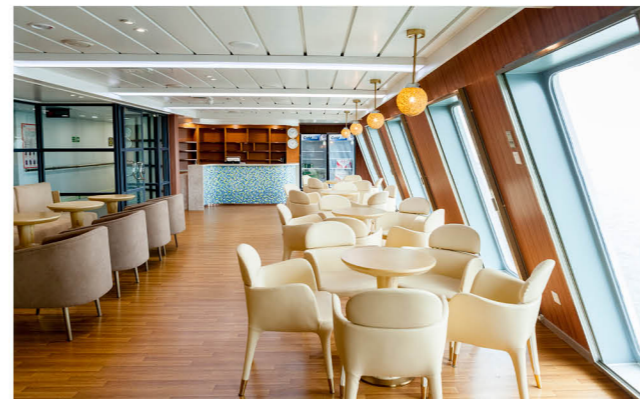
봉래 - 팔선과해구, 삼선산풍경구

연태 - 연태산 근대역사유적지, 장유와인박물관, 연태시립박물관

청도 - 5.4광장, 잔교, 재래시장, 소어산, 옛 독일관저, 맥주박물관, 팔대관

태산 - 고차박물관, 강태공사당, 태산등정(케이블카 왕복), 공부, 공모, 공림, 양가부민속촌

제남 - 고대문화를 간직한 산동성의 성도, 물의 도시



운항 일정 및 여객운임(원)

<군산 입출항 일정>

입항 - 매일 오전 9:00시(토요일 제외)

출항 - 월(20:00시), 화(18:00시), 수(20:00시), 목(18:00시), 토(20:00시), 일(18:00시)

<석도 입출항 일정>

입항 - 매일 오전 9:00시(토요일 제외)

출항 - 월(18:00시), 화(20:00시), 수(18:00시), 목(20:00시), 토(18:00시), 일(20:00시)

<여객운임>

ROYAL - (2인 침대/12실) 편도 : 200,000 왕복 360,000
 1ST CLASS - (4인 침대/28실) : 편도 170,000 왕복 306,000
 2nd CLASS - (4인 침대/40실) : 편도 150,000 왕복 270,000
 3rd CLASS - (6인 침대/141실) : 편도 130,000 왕복 234,000
 (10인 다다미/2실) : “ ”
 (17인 다다미/2실) : “ ”

* 이상의 요금은 관광진흥기금(1,000원)과 터미널 이용료(1,500원) 및 국제유가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것임

따뜻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실천

기업을 운영하면서 김 사장이 가장 보람을 갖는 부분은 무엇보다 100여명의 직원 모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직원들이 회사 창립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매월 급여의 1%를 공제하고 회사에서도 그 전체 액수만큼 기부해서 매월 350만원에 이르는 장학기금을 조성, 관내 초·중·고 결손가정 학생 35명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직원들 모두 큰 보람으로 받아들여 김 사장 자신도 직원들이 대견하다는 생각에 내심 흐뭇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가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후원을 목적으로 창설된 매세나 운동에도 기꺼이 동참, 지역 회장을 맡아 관내 많은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에도 열성을 다한바 있고, 전북해양구조협회 전북지부장으로서 해마다 은파유원지에서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시민 상대로 해난구조 시연 행사를 갖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도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구조 단계별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훈련인 이 행사는 올해가 벌써 4회째로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행사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랄 수 있는데 김 사장의 앞으로의 소망은 무엇보다 회사의 운영이 안정기를 넘어 본격적 수익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후원을 늘리는 일이다.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육성은 그 도시와 공동체 전체의 민도(民度)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석도국제훼리(주)
군산시 임해로 378-14
국제여객터미널 내
T.063)441-1200





부부의 산행

내 인생은 '무지개'

- 무지개 활어수족관 정태호 부부
- 봉사와 기부, 소상공인의 귀감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32년 동안 수족관에 무지개를 그리며 살아 온 정태호·김점덕 부부. 살면서 힘들다 타박하지 않았던 아내였고, 아내의 말이라면 그대로 따랐던 남편이었다.

토끼가 발맞추는 남원 운봉과 인월이 고향인 부부가 군산에 마음 붙이기까지는 힘든 세월이었다. 그러나 부부는 자석처럼 붙어사는 천생 인연이었고,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힘들었던 지난날들을 넘어 이제는 '수족관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부부의 삶이다. '무지개 수족관'하면 군산은 물론 전국에서 다 알아주는 이름이다. 관상어에서 활어수족관까지 한 시대를 주유해 온 부부의 이야기는 참 남다르다.

“일을 끝낼 때쯤이면 동네 할머니들이 어둠을 가르며 새벽기도에 나서는 걸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일할 때가 다반사였지만 힘든 줄 모르고 했어요.”

열대어, 해수어, 수초, 산호 등등을 유리관 안에 넣어 시원한 그림을 만들어 판매하는 관상어 사업이란 보기만큼 녹록한 게 아니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죽을 등 살 등' 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땐 참 열심히 살았어요.” 첫째 딸 주연, 둘째 아들이 공무원이 된 동준이다. 도로 변에서 일을 하였기에 어항 안에 아이를 놓게 했다.

정 사장은 일곱 살 때 고향 산골의 '대성당'이라는 서당에서 공부하면서 자랐다. 청년 때 배추, 사과 장사를 하면서 눈에 담아 둔 인월 처녀 점덕 씨. 피 끓는 청춘들의 인연은 서울에서 이어졌고, 오늘날까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산다.

“군산에 1989년 2월에 처음 내려와 시작했는데, 그 때도 가게 이름도 무지개 수족관이었고 그 이름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무지개로 남을 겁니다.”

냉각 가스를 살피는 정태호 사장



무지개 활어 수족관





“독일의 테트라 등 회사에서 관상어 사업 하는 이들을 초대했는데 비행기만 타고 가면 먹고 자는 문제는 물론 교육도 받게 해줬어요. 그렇더라도 그 당시 100만원이 넘는 비행기 값은 큰돈이었는데 아내가 그 돈을 마련해줘서 공부할 수 있었지요.”

관상어 일이란 열대어 등 물고기에 모래, 수초, 산호 등 장식물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주느냐의 일이며,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감각이 중요하다. 그 걸 외국 연수 다니면서 눈에 익히고 감각을 체계화 하면서 남들보다 앞서서 나갔으니 전문가로 일어서는 건 당연했다.

“아무런 지식도 없이 시작해서 막막했는데, 해외 초청 교육이 정말 도움이 됐지요. 건문을 넓히면서 수족관 관련 기술을 많이 축적했는데, 그 때의 공부가 부족하나마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활어 수족관이 유행한 건 비브리오 패혈증이 수온 15도 이하에선 옮겨지지 않는다는 게 알려지면서 횡집마다 냉각 수족관을 들여 놓은 게 단초가 되었어요. 요즘은 낚싯배에도 이런 수족관을 놓는 게 유행이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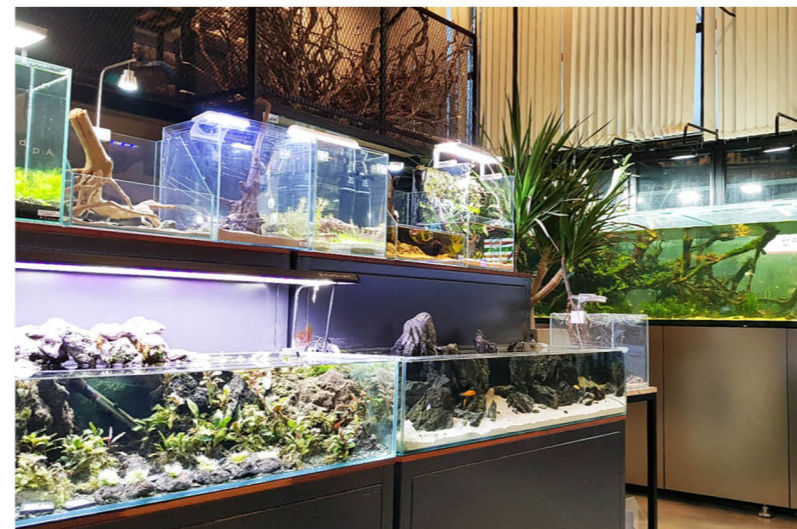
군산과의 인연 또한 참 독특하다. 80년대에 좌석버스 기사를 했던 남편 월급이 25만원, 알뜰했던 아내이지만 참 힘들었다. 2년만에 그만 두고 네온오크라고 하는 사업체를 잠깐 할 당시의 원재료가 군산 백화양조에서 ‘베리나인’을 숙성하고 난 빈 오크통이었다.

군산의 백화양조가 없었더라면 정 사장 부부의 군산행은 아마도 없었을 거다. 빈 오크통을 잘라서 유리관을 씌우면 어항이 되었고, 유리와 받침을 만들면 장식장이 되었다. 그런 소품들을 만들어서 현대백화점에 납품도 하고 일반 가정에 팔았다.

“오크통으로 소품을 만들던 시기에 수족관을 오래한 친구를 만났고 거기에서 아이템을 잡았지요. 군산에 내려와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오늘날 건물 몇 채와 부동산도 있고, 가족들이 모두 제 자리를 잡았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정 사장은 나름 학구파이다. 소리 없이 예절학교인 ‘공주 도령서당’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군산에서 빈손으로 사업을 할 때에도 10년 동안 해외 교육 연수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끈기를 지녔다.

관상어 매장의 어항들



관상어 수족관은 이렇게 자연을 유리관에 감각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중국으로 가족 여행



라이딩 하는 정태호 김점덕 부부



가족 여행



회갑 기념여행, 사위, 아들, 손자와 함께



정태호 부부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정태호 사장 부부

부부는 2013년부터는 금동(해망로) 사업장에만 전념하고 있다. 활어수족 관업을 하면서 광어 축제 등에 수족관을 임대해주는 업체로 유명해졌다. 다른 집에서는 못하는 걸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대형 수족관이 몇 십개 씩 필요한데, 그런 물량을 갖춘 업자가 없었어요. 저는 금동과 미장동에 창고가 있었기에 그런 장비를 갖출 수 있었고 맞춤형으로 물건을 대줄 수 있었지요. 아마도 전국 활어 행사의 절반 이상은 무지개에서 대주는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군산의 경우 활어수족관과 관상어를 하는 업소를 합하면 다섯 집 정도인데 모두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부. 여러 모임과 봉사도 하지만 군산소상공인협회의 일원이다. 더불어 살아가려는 소상공인 모두가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무지개 수족관’ 시절이나, ‘무지개활어수족관’ 시절이나 정 사장 부부는 가족 경영이다. 처음엔 아내와 둘이 일했고, 그 이후엔 처제가 도와주고, 시간이 지나니 사위와 딸이 일을 돕고 있다. 아들은 공무원이고 딸은 군산의 체육인 박영민씨 며느리이다.

현대중공업에서 사업하던 사위는 요즘 재기 중이다. 공장이 문을 닫자 직원들과 함께 산다고 고생고생 하다가 가진 걸 모두 잃은 후의 일이다.

“사위가 이 일을 해보더니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위가 직원들을 위해 온 몸은 던진 그런 기개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자의 의리인데, 그런 아픔이 이 사업에 힘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관상어 사업이 힘들지만 딸과 사위가 사업을 잇는다고 하니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부부는 오늘 아침에도 비응항에 나가 냉각 수족관을 설치해 주고 왔다. 낚싯배의 서비스도 이렇게 진화했다.

세상 일이 그렇듯이 부부 또한 손 놓을 시기를 생각하고 했다. 하나씩 하나씩 자식들이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모두가 한 가족이니 천천히 이야기 나눌 일이다.

“사위가 일하고 다니는데, 거래처에서 ‘아빠를 닮았는가,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똑같이 허라는 소리를 해줄 때가 가장 기분 좋다.’고 말하는 정 사장 부부에게서 오색 빛 무지개를 본다.

무지개활어수족관
군산시 해망로 275(금동 55-1)
(063)443-1595
010-3671-9382





김입분, 최인철 부부

군산에 이런 곳이! 2천여 평 정원 카페 '미라벨(Mirabell)'

김입분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불과 2개월 전인 지난 7월 초, 개정면 아동남로 야산의 고갯마루에 문을 연 카페 '미라벨'이 화제다. 군산에서는 볼 수 없는 정원 카페로 경내 면적만 해도 2천여 평에 이르고 자연 상태로 조성된 온갖 수목과 화초들, 연못과 분수의 운치와 함께 넉넉한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카페 내부에는 20여 년 이상 되었다는 열대어들의 수족관, 그리고 초등생 아들과 함께 손수 제작한 온갖 멋진 레고(lego) 전시까지 하나같이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본래 군산 출신인 김입분 대표와 창원 출신인 부군 최인철 씨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은 서로가 GM자동차 근무하는 동안 눈이 맞아 남모르게 사랑을 키워오면서 일생의 반려자로 언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지난해 GM이 군산을 떠나자 아예 명예퇴직하게 되었고 최인철 씨는 처가가 있는 군산이 좋아 창원으로의 귀향을 포기, 아내인 김 대표와 마땅한 사업을 모색하다가 올해 초 현 부지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어 서둘러 매입한 것인데 시내 권을 벗어난 고즈넉한 위치도 좋았고 무엇보다 넓은 부지에 많은 수목들이 잘 조성되어 있어 평소 자신들이 동경했던 여건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미라벨의 의미

예전에 음식점으로 쓰였던 이 건물을 인수한 후 이들 부부는 기존의 건물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하고 정원을 멋지게 단장했다. 그리고 미라벨(Mirabell)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열었다. 미라벨은 17세기 경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주(州)에 건립된 왕궁으로 볼프 디트리히 대주교가 사랑하는 여인 살로메를 위해 지었으며, 왕궁 앞 미라벨 정원은 아담한 규모에 수많은 대리석 조각물과 꽃들이며 유럽의 많은 바로크 예술품들을 전시한 박물관 등, 그 아름다움으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거니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여주인공 마리아가 아이들과 '도레미송'을 불렀던 곳으로도 널리 알려진 장소이다.



이로 볼 때 평소 자연적 환경에서의 꽃과 수목들을 좋아하는 김 대표에게 미라벨 정원은 상상 속 이상향 이었던 듯하다. 또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지었다는 왕궁이라는 것에도 의미를 두고 싶었는지 모른다. 사실 최 인철 씨는 직장생활 중 워낙 산을 좋아해 전국의 100대 명산을 두루 섭렵하는 동안 수많은 카페를 보아왔던 터여서 막연하나마 만일 자신이 카페를 개업하게 된다면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될지 나름의 구상도 키우고 있던 터여서 이래저래 부부에게 카페 스타일에 대한 공감대가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산책도, 공연도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

미라벨 경내에는 핑크빛 꽃이 만개한 배롱나무들과 향나무, 회양목, 목련, 감나무, 단풍나무, 무리진 철쭉, 모과나무, 주목, 소나무, 메타세콰이어를 비롯하여 허브식물들과 핑크물리 등 다양한 화초와 수목들이 잘 구성되어 있거니와 군데군데 나무들 아래에는 데크를 설치, 여러 명에서 편안히 차를 마시며 담소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꾸며놓았다. 또한 정원 한 쪽엔 가족 형 텃밭을 가꿔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피망 등 몇 종의 농작물도 자라고 있는데 필요한 손님은 얼마든지 따 가도 좋다고 해서인지 필자가 갔던 날은 열매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또한 소규모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데크도 핑크물리밭 옆에 따로 설치되어 있어 공연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해달라는데 지나치게 시끄러운 공연만 아니라면 가능할 듯 하다.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 상시 상영

카페 건물 외벽은 전체가 흰색이다. 그러나 여느 건물과 달리 상호가 붙어있지 않아 이유를 물으니 밤에는 외벽 전체를 스크린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란단다. 단 상영하는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 한 편이다. 실제로 그 영화의 중요 부분이 미라벨 왕궁 정원에서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으로 영화감상은 밖의 벤치에 앉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물론 무료이다.





하얀 외벽은 아간에 스크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미라벨은 고객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비해 커피 가격도 3,500원대로 착한 편이다. 사실 개업을 앞두고 이들 부부는 하루에 열 잔 정도나 팔릴까 하는 미심쩍음이 컸던 관계로 매출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취미생활 공간으로서 행복을 가꾸며 살 수 있는데 위안을 두자며 서로 격려했는데 개업 2개월도 안 된 지금 입소문이 나면서 예상과 달리 친구와 연인, 가족, 직장인 및 단체손님들까지 하루가 다르게 고객이 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건물 뒤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될 것 같으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지경이다.

아내는 카페 대표지만 자신은 안팎의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이라 말하며 웃는 부군 최인철 씨는 현재의 시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할 예정이라기에 그간의 투자비 10억여 원 말고도 그러한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돈을 언제 그렇게 많이 벌었느냐고 농담 삼아 물었더니 그가 들려주는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술, 담배, 주식, 이 세 가지 것을 안 했더니 돈이 모이던데요”

카페 '미라벨'
군산시 개정면 아동남로 129
063)452-5867



“우리는 빵으로 뭉친 사람들”

- 월명동 오존베이커리
- 여찬기 김민섭 이인희씨

글 | 김혜진(편집위원) /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 맞는 누군가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때 안락함을 얻는다.

월명동에 위치한 ‘오존베이커리’는 유쾌하다. 이 곳에서 빵을 만드는 서른 살 여찬기씨, 스물 아홉 살 김민섭씨, 스물 일곱 살 이인희씨 때문이다.

이곳은 <매거진군산> 인터뷰 차 가기 전에도 몇 번 들렀던 곳이다. 처음 이 곳에 데려 간 지인 왠지 인터뷰나 빵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이곳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김민섭, 여찬기, 이인희 씨



개성 강한 3인이지만 빵이 좋아 뜻을 모았고, 빵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 이들이다. 세 명의 빵 만드는 청년들은 작년 이곳에서 베이커리로 도전장을 던졌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군산으로 오게 됐고, 가게를 창업했다. 붉은 벽돌로 된 외관에 ‘빵’이라고 써 있는 간판이 인상적인 이곳은 테디베어박물관에서 동국사 가는 방향으로 몇 발자국 가면 나온다. 문을 열면 이곳의 빵 만드는 사람들이 반갑게 반긴다.

왜 제빵을 시작했나요?

찬기씨와 민섭씨는 대학 동창이다. 전공은 각자 달랐지만 20대 중반에 입학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찬기씨는 스무살 때 제빵과 관련한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제빵을 배우려면 2년제에 입학해야 했고, 주위의 반대에 결국 4년제 토목공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1년 후 군복무를 마치고 호주에서 2년간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제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섭씨도 첫 직장은 직업군인이었지만 전역 후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하다가 제빵의 길로 들어섰다.

졸업 후 둘은 서울에 있는 유명 제과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민섭씨는 잠실점에서, 찬기씨는 본점에서 일했다. 이 때 찬기씨와 인희씨가 한 집에 같이 살며 인연을 맺게 됐다. 인희씨는 바이올린을 전공했다.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제빵에 뜻을 둔 케이스다. 인터뷰 중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땀 레야 땀 수 없는 사이”라고 정의했다.





산소 원자 세 개로 이뤄진 오존처럼

오존 베이커리는 지난 2018년 2월 문을 열었다. 원년 창업자는 찬기씨와 민섭씨다. 군 전역 직후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2주간 자전거로 전국을 돌았다.

이 때 눈에 들어온 곳이 군산이었다. 군산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 서울의 복잡함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다. 사람들, 옛 모습을 간직한 건축물들을 마주했다. 그 잔잔하고 아늑한 느낌이 좋아 매장을 오픈했다. 매장 이름은 '오존'. '산소 원자 세 개로 구성된 기체'를 의미하는 기체 오존(ozone)과 산소 원자들이 모인 오존처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모습을 떠올렸다.

인희씨도 두 사람의 뜻에 동감했고, 올해부터 선뜻 같이 일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빵 만드는 사람들이 구성되었다.'

아무거나 드셔 보세요

이곳은 건강한 빵 만들기를 추구한다. 노(no)첨가물, 노(no)계량제, 당일생산, 당일판매를 철칙으로 삼고 있다.

천연 발효를 24시간 저온숙성해 먹을 만큼 적당히 만든다. 시중에서 파는 값싼 재료로 대량의 빵을 만들 수도 있지만 편법(?)은 거부한다. 사람들은 사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쿨하다. 노력은 결과물에서 나온다. 오래 먹어도 거부감이 없고 소화가 잘 된다. 또, 자극적이지 않지만 빵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다.

"주변에 쟁쟁한 베이커리가 많지만 우리가 만드는 빵을 맛보고 또 다시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요. 그러니 열심히 땀 흘려 좋은 빵을 만드는 일밖에는 할 게 없지요"

이들은 "맛있는 빵을 손님들에게 계속 선보이는 일이 최종 목표"라고 했다.





우리는 빵 만드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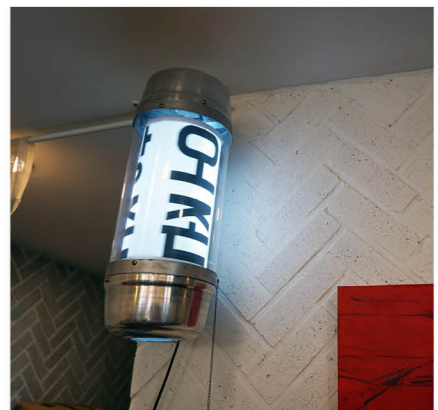
찬기씨, 민섭씨, 인희씨는 '대표'라는 다소 무게감 있는 직함보다 '빵 만드는 사람들'이 더 좋다고 했다. 이들은 손님들과 웃고 대화하며 친구가 되길 마다하지 않는다.

또, 굳이 빵을 사지 않더라도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 이들은 오존베이커리가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이길 바란다고 했다.

오존베이커리의 느낌은 포근하다. 세 사람들은 이 공간 속에 오고가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간다. 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려 주고, 단골 손님에게 먼저 안부도 묻는다. 맛있는 빵이 있으면 먹어 보라며 선뜻 시식도 권한다. 이유 없이 빵이 땡길 때, 사람에게 치일 때, 잠시 차 한잔 하면서 쉬고 싶을 때 이곳의 문을 열어 보자.

혼자도 좋고 가족, 친구와 동행해도 좋다. 누구든 한 번 만나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세 사람과 함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존베이커리
 군산시 구영7길 23
 오전 10시~오후 8시 (빵 소진시 조기마감)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청년 사장이 내놓는 ‘한방맛, 불맛’

- 도도랑 족발·보쌈 군산본점, 박준규 청년
- 조미료와 MSG를 쓰지 않는 건강한 족발과 보쌈

글 | 채명룡(편집장)
cmr0118@naver.com



청년상인 박준규가 주방에서 보쌈을 썰고 있다.

청춘(靑春)!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鼓動)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巨船)의 기관(汽罐)과 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열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라? 열음에 싸인 만물은 열음이 있을 뿐이다.

-민태원의 수필 '청춘예찬' 중에서-

마음씨가 아름다운 청년 박준규(26). 청년상인의 정직한 마음처럼 수송동 아이파크 서문 앞의 수송동 828-4번지에 자리 잡은 '도도랑 족발·보쌈 군산본점'이 '한방 맛, 불 맛'으로 소문을 내고 있다.

기본기가 튼튼한 한방 족발과 보쌈의 경우 담백한 특징에 반해 육질이 쫄깃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고기를 다루는데 선수급인 청년 사장의 마음이 담겨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고기와 족발을 삶는 때는 색깔을 위해서 몇 가지의 한약제와 함께 부드러운 맛을 내려고 야채를 넣거든요. 꼭 지키는 건 조미료와 MSG를 쓰지 않는 일이에요.”

건강한 음식 만들기를 기본으로 땀 흘려왔던 한 청년의 열정이 녹아들고 있는 음식 조리 현장이다.





한방족발과 불족발이 섞인 반반 족발

보쌈 김치의 맛은 족발·보쌈집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 집의 무말랭이 무침은 양념과 적당히 섞여 숙성된 식감이 압권이다. 또 배추김치의 알싸한 맛과 어우러져 족발과 보쌈의 맛을 한 층 끌어올려준다. 함께 내놓는 뚝배기 김치국도 얼큰하고 좋다.

이 집의 기본기가 담긴 불족발의 경우 고기를 살짝 구어 내면서 나는 '불맛'이 은은하게 배어들었으며, 달면서 약간 매운 소스 맛으로 입안을 간지럽힌다.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듯하고, 매운가 하면 그림던 불 냄새가 은은히 배어나는 게 꼭 어릴 때 빼치기 잘하던 여자 친구를 닮은 느낌이다.

도도랑의 메뉴는 어느 족발·보쌈 전문점과 다르지 않다. 일반적인 한방족발 또는 보쌈(앞발) 35,000원(대), 30,000원(중)이며, 불족발의 경우 대(750g) 32,000원, 소(500g) 25,000원이다.

모듬스페셜(족발/불족발+보쌈)이 48,000원, 반반 족발(한방+불족)이 36,000원이다. '혼술' 손님들을 위하여 반족/반보쌈 20,000원, 반불족 20,000원 메뉴를 내놓았다. 식사로 쟁반국수와 주먹밥, 알밥이 있다. 포장 판매도 하는 데 약간의 돈을 빼준다.

'도도랑 족발·보쌈 군산본점'은 특별하지는 않지만 깔끔한 내부 인테리어에 60여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규모를 갖췄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상차림을 만들어 내려는 20대 청춘의 땀과 열정이 하나씩 하나씩 배어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해병대 제대 후 서울에서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소 부산물 배달 알바를 시작했던 청년 박준규. 나름 의리파인 그는 엄마도 모르는 책임감으로 뚝뚝 땀 흘린 청년이었다. 소 내장과 부산물을 수도권 일대의 거래처에 배달하는 일을 도운 게 오늘의 그를 만들어 낸 인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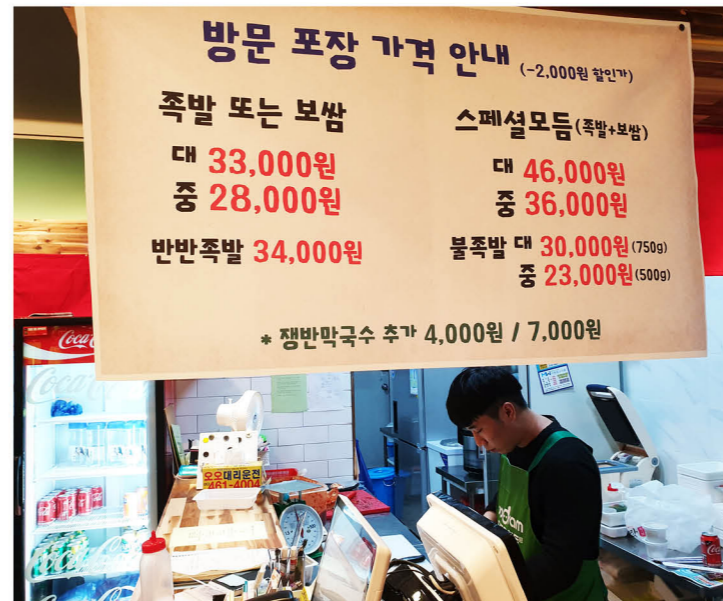
"몇 해 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린 날이었어요. 도로가 빙판 저서 차가 획획 돌 정도로 위험했는데, 아들이 수원의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다주어야 한다면서 탑 차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무척 위험한 일이라 가지 말라고 막았지만 한편으론 대견하더라고요."

박 군의 평생 후원자인 엄마 김소울씨는 그 때부터 아들이 하는 말은 모두 믿기로 했다. 청춘의 아름다운 선택과 위험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려는 아들에게서 맑게 갠 하늘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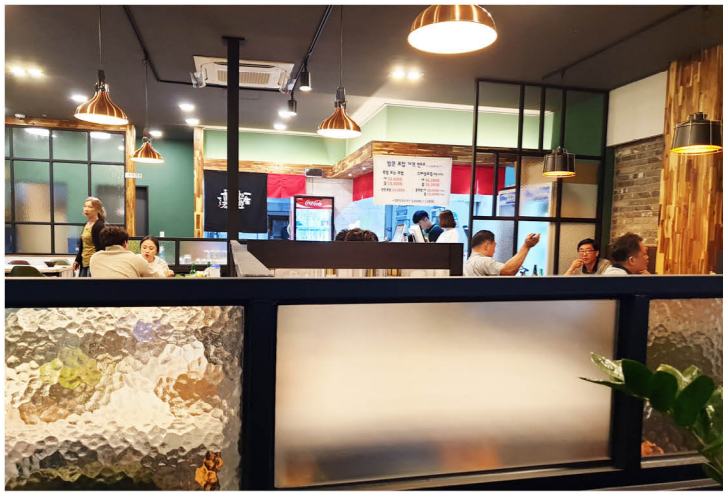
해병대를 나온 박준규 청년사장과 가족들

포장 판매도 하는 도도랑



주먹밥을 만드는 박준규 청년사장의 엄마 김소울씨





도도랑 족발 보쌈집의 내부

“부산물을 배달하던 사장님께 발골(소나 돼지의 뼈를 바르고 살을 부위별로 잘라내는 직업)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장님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 될거다. 포기하지 않고 한 번 가보겠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한다고 했죠.”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던 것 스물이 지난 청년 앞에 육고기 업계에서 가장 난이도 높은 ‘발골’이라는 과제가 놓여졌다. 스무살 청년이 육가공 기술에 도전하려는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어쩌면 특이한 일이었다.

지곡동 쌍용예가 아파트 들어가는 축산물직거래장터 ‘동아유통’에서 3년을 일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잡혔다. 몇 년이 지나면 이 업계에서 손꼽는 장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뚝배기 김치찌개가 함께 하면 얼큰맛이 추가



청년의 도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유통에 이어 스스로 창업하는 꿈을 키웠으며, 3년의 세월을 견딘 믿음이 두 달 전 프랜차이즈 음식업에 도전하도록 이끌어 주었다.

“가까운 친척이 이 프랜차이즈 음식업을 소개해 줬어요. 물론 외식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고기를 다루는 일이니까 제가 그 동안 배워왔던 일들을 잘 응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원칙을 지키면서 일할 자신이 있으니까 한 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도도랑’은 전북권을 기반으로 하는 체인점이다. 전주에 8개의 매장, 익산과 군산에 1개씩 매장을 오픈했다. 청년상인 박준규의 외식업 도전이 시작되었다.

가게에는 아빠 박정업씨가 늘 함께 한다. 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서비스를 하는 일은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 중심을 가족들이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청년 상인은 음식을 만들면서 건강한 밥상과 술상을 지키려고 했다. 고기를 발라내는 일을 해왔던 그이기에 족발과 보쌈 고기를 최고급으로 만들어 내는 건 기본이다.

청년상인 박준규, 그의 주변에는 중학 동창 여자 친구들이 넘쳐난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인기 있는 ‘의리남’이어서다. 갈등하고 번민해야 할 20대 청춘의 꿈, 두 형제의 만이로 나름 책임감이 몸에 밴 그였다.

방황하던 그가 프랜차이즈 족발 보쌈 음식 장사에 뛰어 든 건 이처럼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청년의 열정이 시나브로 배어 든 수송 아이파크 서쪽 문 앞 족발, 보쌈집. 스물 갓 넘은 혈기 방장한 청춘이지만 끈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가족들의 ‘의리 경영’과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가족 경영’의 뜻이 함께 자라고 있다.

가슴이 허전하거나 달달한 느낌의 위안이 필요할 땐 ‘도도랑 족발·보쌈집’에 가보자.

‘도도랑 족발·보쌈 군산본점’
군산시 수송동 828-4
예약 010-9326-7637

개화기(開化期) 의상 대여점 '모던타임스(Modern Times)'

박세진 매니저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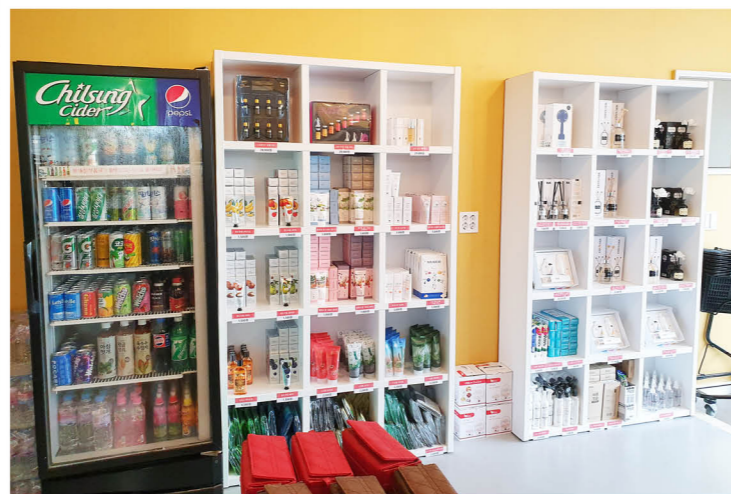


지난 8월15일, 영화동에 약 75평 규모로 문을 연 의상 대여점 '모던타임스'는 일제강점기 잔재가 많은 근대역사경관지구로서 이를 콘셉트로 하는 근대역사박물관과 시간여행축제 등을 개최하는 도시라는 것에 착안, 관광객들이 개화기 당시의 의상과 복식(服飾)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시대상을 재현한 의상을 대여해주는 곳이다. 이 업소의 점장을 맡고 있는 박세진 매니저에 따르면 현재는 내부 시설과 상품을 보완 중으로서 정식 개업은 9월 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종류와 수량의 추가 확보와 함께 내부의 사진촬영 스튜디오 등은 개화기 당시의 거리 풍경이나 옷차림새 등을 엿볼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다라 한다.





개화기(開化期)라 함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서양문물의 영향을 받아 종래의 봉건적 풍속과 사회질서에서 벗어나 근대적 사회로 개혁되어 가던 시기를 일컫는 말로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시기이다. 따라서 140여 년 전 이후 해방 무렵까지 우리네 선조들이 격동의 개화기를 거치며 어떤 옷들을 입게 되었는지 복식의 변천사를 가능해 볼 수 있거니와 당시의 문화적 시대상은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자주 소개되어 누구에게나 익숙해졌으리라는 생각이다.





‘모던타임스’에서 대여해주는 옷들은 여성복의 경우 원피스와 투피스, 드레스, 철릭, 개량스타일한복 등으로 대여 시에는 그 복장에 어울리는 소품(양산, 가방, 모자, 장갑, 부채, 브로치 따위 악세사리)도 기본적으로 포함된다. 반면에 남성복은 양복과 와이셔츠 넥타이 등으로 종류가 단순한 편이다. 이러한 개화기 복장은 문화예술 공연 팀을 비롯하여 중, 고 학생들 축제 시에 특히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전통한복을 취급치 않는 이유는 입고 벗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머리스타일과 전반적으로 매칭이 되어야 하는 등 번거로움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커서다.

개화기를 돌이켜보면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입어왔던 천편일률적 한복에서 벗어나 보다 실용적이면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서구 옷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특히 양반 계층 사이에서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모양이나 색상이 다채로우면서도 생활에 편리한 뛰어난 실용성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리라는 생각인데 그러다보니 오늘날 역설적이게도 우리 한복은 일상복이 아니라 특정 행사 때에나 입는 이벤트 성 복장으로 전락한 감이 있지만 사실 우리 전통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실 오늘날은 의상의 디자인이나 유행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보통사람으로서는 적응하기 힘들 지경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존했던 옛 개화기 시절의 고풍스런 의상에서 차분한 멋과 낭만을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 그 때로 돌아가 당시의 의상 차림으로 근대역사거리를 걸으며 사진이라도 찍어둔다면 후일 멋진 추억의 한순간으로 남지 않을까 한다.

의상 대여비
3시간(기본) 20,000원
1일 40,000원
1박2일 6만원

모던타임스
군산시 해망로 231
(근대역사박물관 대각선 맞은편)
매니저 HP : 010-5906-6852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 박용배 프로골퍼의 ‘인생골프’
- 30대 중반 프로골프 선발전 합격
- 골프와 함께 인생을 설계해주는 지도자

글 | 김혜진(편집위원) / 새군산신문 기자
kimhyejin0324@hanmail.net



생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 한 살씩 먹고 먹어 중년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렵다'고 말한다.

대개 가지 않은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란 청년 시절에 주어지는 카드와 같다. 30대를 넘어서면 대부분 현실에 안주하고, 도전을 두려워한다. 잃을 것이 많아지기 때문일까.

필자는 스물여덟 살이다. 하고 싶은 일과 지속 가능한 일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다. 나이가 더 먹기 전에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겼지만, 핑계를 대며 미뤄 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성하면서도 '미룰 만 하다'며 안주했다.

그런데 30대에 골프에 입문한 박용배 프로골퍼는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아 온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여러 사업을 했지만 결국 청년기에 맺은 골프와의 인연을 프로골퍼로 승화시켰다. 역경을 헤치고 오늘에 선 그의 열정과 의지는 정말 남달랐다.

투어 프로로 나서지는 않지만 정신만큼은 그에 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올 해 만으로 마흔 아홉 살인 박용배 골퍼. 인생골프를 말하는 그와의 대화는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실내연습장의 개념을 확 바꾼 '박용배 골프아카데미'

수송동 FM치과 바로 뒤편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박용배골프아카데미는 바람 많고 번덕 많은 군산 날씨에서 사계절 마음 놓고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늦여름인데도 시원한 분위기가 반겼다. 타석 앞에는 모니터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치 라운딩 현장에 나온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았다. 모두 10개의 타석을 갖췄으며, 개인 사물함과 탈의실 등 부대시설을 완벽해 놓았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선수를 육성하기도 하지만 아마추어들에게 맞춤형 레슨을 해주는 걸로 유명하다.

“피나는 노력과 돈이 들어가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즐기면서 골프와 함께 하려는 동호인 골퍼들을 육성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는 지도자이지만 평생 골퍼이기도 하다. 긴 인생을 살면서 골프라는 운동과 동반하여 살아가고픈 생각이 그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를 찾는 골퍼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골프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조언이다.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골프에 너무 빠져들다 보면 현실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골프는 잘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남은 인생길이 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걸 피하면서 즐기는 게 바로 인생 골프가 가야할 길이라고 믿어요.”



뭘 해야 하나요

사람마다 타고 나는 무언가가 있다. 박용배 골퍼는 운동 신경을 물려받았다. 미성동 들판에서 뛰어 놀며 생긴 후천적 재능일지도 모르겠다. 농사를 생업으로 삼은 부모님 슬하에서 2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나 예쁨도 많이 받았다.

처음 접한 운동은 씨름. 학교에서 매주 한 번씩 하는 체육활동을 통해 접했다. 한 덩치 하는 씨름선수들 사이에서 호리호리한 체형으로 제법 잘 날라 다녔다. 어린 그는 운동이 좋았다. 운동부가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싶었다. 하지만 생업에 바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다.

그는 중, 고등학교 시절 학교-집-도서관만 다녔다고 말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이 그러질 못했다. 스무 살 그는 서해대 관광과에 진학했다.

골프에 관심을 갖기 시작

그는 대학 재학 중 군대에 다녀오면서 골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부대 안에 간이 골프 연습장을 관리하게 됐고, 틈날 때마다 골프를 쳤다. 골프 선수를 해야겠다는 마음보다, 배우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역 후 자동차 인테리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스물 다섯 무렵 익산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1997년 외환위기 후 군산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일을 했다. 자영업 을 하느라 365일 긴장을 놓지 않았기에 생업은 고달팠다. 실패도 몇 번 겪었다. 골프는 힘들었을 때 시작했다. 청춘 때 골프장 관리병을 했던 게 작은 인연이 됐다. 그 당시 연습장 프로가 스코어 게임이니 한번 나가보라고 권유했다.

2005년 KPGA(한국프로골프협회·한국e스포츠협회의 옛 이름)에 입문했다. 30대 초반의 늦다면 늦은 나이지만 일취월장했다. 흥미로운 일이어서 금방 프로들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



골프에 흥미 가질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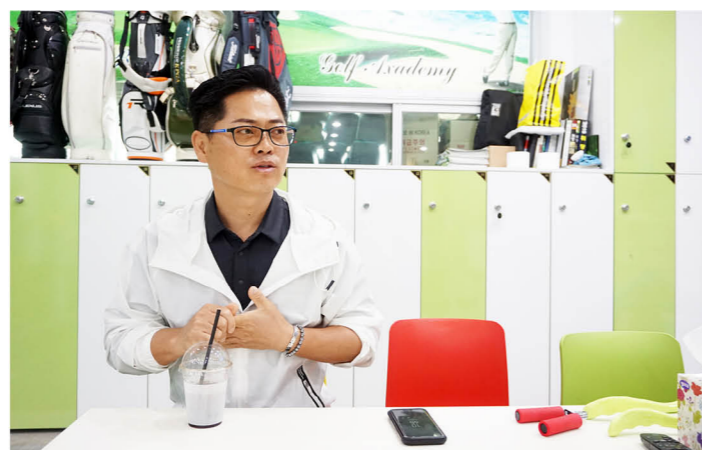
처음 골프 수업을 받는 사람들은 복장, 장비 등을 고민하기 마련이다. 그는 일단 몸만 오면 된다고 했다. 골프 입문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먼저 질문하는 그의 자세에서 입문자들을 배려하려는 지도자의 마음이 보인다.

'귀족 스포츠'로 간주되던 시절과는 달리 요즘은 대부분 흥미를 갖고 편하게 수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골프의 '골' 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네 번 수강한다. 이론, 규칙, 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본자세부터 가르쳐 준다.

그는 사람들이 즐기면서 하는 것을 바란다. 골프에 재미를 붙이고, 즐길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꾸준히 배우면 3개월 내 필드(field)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교육시킨다.

그래서일까. 교육생들보다 주로 사회인들, 재미있게 골프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많이 찾는다. 특히 여성 골퍼들에게 인기 많은 지도자이다. 그의 성실함과 자상한 매너는 이미 군산의 골프계에 정평이 나 있다.





골프와 함께하는 생활

그는 주중, 주말 동호회 활동을 병행한다. 주중에는 P.G.A갯샷 동호회, 주말에는 P.G.A주말반 동호회다.

P.G.A갯샷 동호회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김종순 회장 외 49명이 활동하며, 아카데미 현 회원 및 전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P.G.A주말반 동호회의 경우 주말밖에 시간이 없고 동반 라운딩 할 사람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김향은 회장 외 70여 명이 라운딩 나간다. 군산 연고의 골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막연했던 생각이 훅 하고 달려들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가 사업을 제쳐놓고 골프에 입문했을 땐 그 길로만 가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시험도 나가고 싶고, 선수로 뛰고도 싶었지만 생계도 고민해야 했다.

오늘의 결론은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안개 속같은 인생길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산다니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가.

진심을 다해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전하고 있는 프로골퍼 박용배의 건승을 기원한다.

박용배 골프아카데미
군산시 공단대로 226
063-461-3221





제2회 손편지 축제 스케치



제2회 손편지 축제
8월 30일(금) · 31일(토) 14시~21시
장소: 군산우체국거리 (군산고용복지센터)

★ **나만의 무료 제작방법 공개** ★
(1단계는 싫어~ 4단계~~~~~)
하나. 우체통 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
둘. 나만의 무료 필수처에 필수한다.
셋. 사진을 이메일로 보낸다.
- 이메일 주소 : gsursc2vent@naver.com
- 보낼 내용 : 사진 / 이름 / 연락처
- 기간 : '9월 6일 금요일 까지
넷. '9월 30일 월요일부터 찾아가다.
- 사진 찾는 장소 : 글라스스토리 (우체통거리1길 15)
- 문의 전화 번호 : 063. 442. 1167
* 보관기간 : 2020년 8월 30일까지 (무려 1년이나)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비**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

*구직활동비 : 학원 수강비, 자격증 취득비용, 교재구입비, 교통비·식비, 면접의상 구입비 등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18~34세 청년 중 **졸업·종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20%) 건강보험료 기준	66,164원	112,657원	145,739원	178,821원	211,902원	244,984원

• 참여 제외자 및 참여 제한 기간

- **참여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 최종학교 졸업유예·수료자 (졸업증명서 제출자만 허용)
- **참여 제한** : 실업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령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참여 가능



지원요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예비교육 및 취업특강(총 3시간, 군산고용센터) 수료 → 구직활동 이행계획서 제출 → 구직활동 이행(월 1회 이상)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 사용 금액에 대한 포인트 지급(매월 1일, 50만원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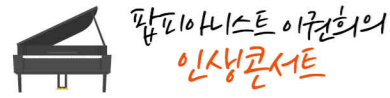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온라인청년센터에 회원가입 후 예비교육 희망지역을 **군산**으로 선택)
-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에서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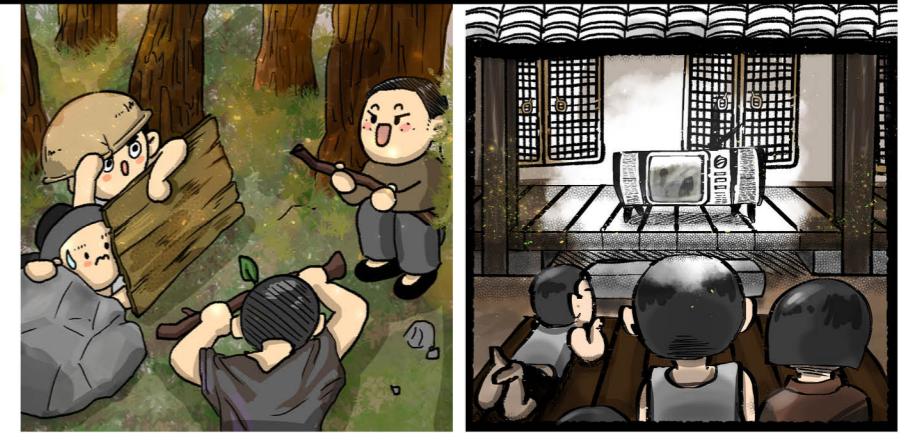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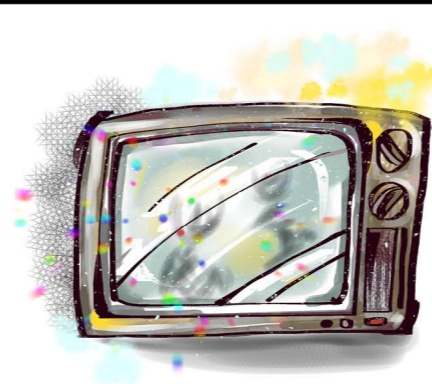
군산 고용복지+센터 (군산시청 건너편) 3층 ☎ (063) 450-0648





<편집자 주>

매거진군산은 '한동안 뜸했었지', '그대 모습은 장미' 등 히트곡을 남긴 록밴드 '사랑과평화'에서 키보디스트로 활동하였던 이권희 피아니스트와의 인연으로 그의 음악 인생을 담은 '피아니스트 이권희의 인생콘서트'를 연재하기로 했다. 이권희씨는 고양시 풍동의 음악작업실에서 작업 중이며, 6장의 독집음반을 낸 피아니스트이다. 그는 군산을 찾아와 인디밴드를 육성하려고 하였으며, 박양기 시민예술총창과의 오랜 인연으로 군산의 뮤지션들과의 넓은 교분을 쌓아 왔다.



제6화. 흑백 텔레비전

몇년전 딸아이와 영화 호빗을 본적이 있다.

4DX로 본 그 영화는 내가 어린 시절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던 세계를 입체적인 영상과 감각으로 보여주었다. 요정과 난쟁이, 마법사의 모험... 그들이 사는 몽환적인 세상과 악을 형상화 하면 그렇게 생겼을 것 같은 괴물들..두 시간 반이 넘는 동안 그 속에 나도 같이 살고 모험을 했다.

아무렇지 않게 생활 속에서 이런 걸 받아들이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 아이들은 참으로 축복이다.

나의 어린 시절에는 현재의 이런 일들이 가능할거라 생각 해 본 적도 없었고 겨우 한 장씩 찍는 카메라조차도 소풍이나 운동회 졸업식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볼 수 있었다. 지금의 카메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진기. 그마저도 학교에 입학해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걸 처음 구경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는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꿈같은 행운이었다. 열 살 때 째 친구따라 앞마을에 가서 처음 본 TV. 와~~~~ 작은 상자 안에서 사람이 나오고 얘길 하고 웃고 싸우고.. 눈을 땔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TV가 요술 세계로 보였다. 지금도 TV는 미디어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시는 흑백TV였어도 우리한테 환상의 그 자체였다.

안타깝게도 우리 동네에는 전기가 없었는데 강 건너 마을은 서너집 밖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들어와 있었다. 왜냐면 전봇대가 큰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연결 공사만으로 전기를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마을은 철거 대상 지역이라 개발 금지령으로 전기 혜택도 받지 못해서 TV를 볼려면 강을 건너 가야 했다.

그 시절 우리에게 제일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전우”라는 전쟁 드라마였는데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전우를 볼려고 아예 강 건너 마을 주변에서 맴돌며 전쟁놀이를 한다.

머리에는 철모 대용으로 낡은 바가지를 뒤집어쓰고 산에 올라가 나무를 잘라 그럴싸한 총을 만들어 어깨에 둘러메면 완전 특공대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 했다. 어떤 애는 월남전에 갔다 온 삼촌의 군화를 몰래 신고 나왔는데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군화를 질질 끌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도 품을 잡기도 했다.

소대장은 그중 싸움을 잘하는 아이거나 한 살 많은 형들이 주로 맡았다. 앞장을 서며 “나를 따르라...”하고 호령을 하면 동시에 “예!”하고 복창을 하며 길이 아닌 곳만 골라 풀 숲속을 달리기도 하고 더욱 더 용감함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러 흉탄물로도 지나가면 그 뒤를 어쩔 수 없이 용감한 척 따라 가야만 했다.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애들은 “난 신발 베리머 엄마한테 맞아 죽는기다~~~” 하며 대열에서 이탈해 울먹울먹 하면서 합류도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 가지도 못하면서 입에 손가락을 빨고서 구경만 하기도 했다. 특히 여학생이나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면 난리가 났다 “우와!~ 용감하고 멋진데~” 라고 한마디 던져 주면 그 순간은 특전사 정예요원이 된 것처럼 오버해서 높은 다리 밑을 뛰어 내리고 바위위로 올라가 밑으로 마구 뛰어 내

리기도 했다. 잘못 뛰어내려 발목을 접질러서 주저앉아 우는 애도 있고, 착지를 잘못해서 꼬꾸라져 배를 움켜잡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약함을 안보이려고 태연한척 침을 꿀꺽꿀꺽 삼켜 가면서 뛰어 다니면서 노는 애도 있었다.

“전우” 드라마 방송시간이 다가오면 슬슬 TV가 있는 집 주위로 몰려든다. 괜히 주변에서 우리를 좀 봐달라고 대문 앞을 얼정대면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 어쩌다 주인아저씨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 때는 이 때다 하고 “저~ 아저씨... 텔레비 좀 보여주면 안되세요?..” 하고 얼른 옆에 붙으면 아저씨는 “안된다~ 집에 가라!” 하고 나무라며 무시해 버린다.

주말만 되면 찐드기 같이 집 앞에 와서 귀찮게 하니 주인도 얼마나 짜증이 났겠는가... 그 집은 도시에서 이사를 온 집이라 우리 마을과는 별로 내통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선 아주 불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뻘뻘스럽게 조르니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을 일이다.

들판에서 온갖 장난으로 인해 웃도 엉망이고 씻지도 않은 꼬질꼬질한 얼굴에다 냄새를 풍기는 물골로 우르르 몰려드니 얼마나 지저분하고 싫었겠는가...

그래도 주인아주머니께서는 집으로 들어오라 하시며 마루에 우리들을 앉혀놓고 TV를 밖으로 돌려 보여 주셨다. 그 시간대에는 저녁 식사 시간 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때문에 저녁식

사를 뒤로 미루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신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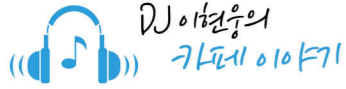
“전우” 드라마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어지는 광고장면에 열이 빠져 있었다. 나는 어쩌면 광고음악에 더 솔깃하게 귀가 쫓긋한 것 같다. 광고 하나하나 할 때 마다 나오는 짧은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곤 했다. 다른 애들은 내가 그걸 연습하고 따라 부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난 한번 들으면 바로 따라 부를 수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 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애들아 이젠 집으로 가자지.. 우리도 저녁을 먹어야지..” 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우리는 서로 어깨를 툭툭 치며 “야. 가라! 하잖아..이젠 집에 가자” 하면서 하나둘씩 일어나 대문 밖을 나오며 철없이 투덜투덜 대며 보여준 고마움 보다는 더 못 보게 내쫓는 야박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TV를 본 후 마을입구 강을 건너 집으로 갈때면 “나는 나중에 돈 벌어서 세상에서 제일 큰 텔레비를 살까다!!!!!!.. 그대 너거들 늦게늦게~~~~ 까지 텔레비전 마이마이~~~ 보여 주게 알았제?~~~~” 하며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해가며 또한 전우 드라마 내용에 사로잡혀 선임하사, 소대장, 각자 좋아하는 출연자 캐릭터를 연상하면서 큰소리로 흥내를 내며 따라 하기도 했다.



피아니스트 이권희 삽화. 이영은(zzari)



그 곳에 가면 진짜 DJ와 진짜 음악이 있다



<프로로그>

지곡동 549-2번지에 가면 카페 '음악이야기'가 있다. 그곳에는 '비틀즈'가 있고 '멜로디 가르도'가 있으며 '질온'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인디 가수도 있다. 여러 단골들도 있으며, 언제나 혼자 와서 독한 칵테일을 마시는 '고독맨', 신청곡이 나올 때 평평 우는 '솔폰 남자'도 있다. 술값이 비싸다 하면서도 발길을 끊지 못하는 '투덜이 아저씨'도 있고 그룹 킨의 음악을 좋아해서 우리끼리 '킨'으로 통하는 손님도 있다. 이 연재는 카페 주인과 손님들의 이야기이다.

카페, 나무를 키우듯

호기롭게 카페를 시작한 지 두어 달쯤 지난 늦겨울에,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심경이었다. 가혹하리만큼 손님이 없었다. 없다 없다 그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을 까 싶었다. 오죽이나 그랬으면 '혹시 건물 1층 출입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렇게라면, 조폭처럼 험상궂게 생긴 사내들이 건물 출입구를 막고 서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한 번은 혹시 출입구에 더러운 오물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어 실제로 내려가서 확인까지 할 정도였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에 누가 밤에 돌아다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밖을 나가보면 길거리엔 사람들이 많았고, 장어 파는 옆집엔 왜 그리 손님들이 많던지....

문을 연지 몇 시간이 지나도록 손님이 없으면 직원들의 얼굴은 어두워져 갔고 그런 직원들의 기분을 풀어줘야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곤 하였다.

"에이, 우리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좀 있잖아? 이렇게 추운 날에 돌아다니면 위험해. 심근경색 올지도 몰라. 그래서 아예 안 나오거나 일찍 귀가 하지. 나부터도 그러겠네"

내가 이런 농담을 하며 애써 웃는 것은 설마 한 테이블도 없이 마감을 하겠냐는 불

같은 생각을 떨쳐내기 위한 스스로에게 의 위안이기도 했는데 불행하게 그 예감은 적중하는 날이 많았다. 그런 날엔 울적하게 하는 손님이 꼭 있다.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고 떼쓰다 나가는 사람, 없는 메뉴 찾으며 왜 없냐고 따지는 사람, 들어왔다가 손님이 없는 것을 보고는 슬그머니 다시 나가는 사람. 출입문 유리를 통해 카페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냥 가버리는 사람, 출입문 앞에서 자기네끼리 들어가자 커니 그냥 가자 커니 옥신각신하다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몇 명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메뉴판을 본 후에 속닥거리다가 앞 다 튀어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나가면서 한 마디 남긴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비싸잖아."

그런 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지인의 방문이었다. 특히 카페 사업을 반대하고 말렸던 사람이 왔을 때 손님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첫마디부터 폐부를 찔러온다.
"날이 추워서 그런가?"
"아까 그 집은 많던데 뭐."
"월요일엔 보통 손님이 없더라고."
"그렇지도 않아. 내가 자주 가는 집은 월요일에도 짹 짹 차."

카페에 온 목적을 알 수 없었다. 격려해주러 온 건지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온 건지 모를 정도였다. 손님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 투의 말로 시작한 그들의 위로는 시간이 갈수록 충고로 변하곤 했다.

인테리어가 어정쩡하다, 싼 맥주를 해서 일단 사람들이 오게 해야 한다, 라이브를 해야 한다는 식의 통상적이고 무작위적인 말들이었다. 걱정이 되어 해 주는 말들이었지만 나는 점점 지쳐갔다. 인내심에 한계가 오면 나는 내심 그들이 그만 가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다른 손님이 와야 바통 터치고 간단면서 평소에는 마시지도 않는 비싼 와인을 시켜놓고 계속 말을 이어간다. 나중에는 나도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 그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내 할 일을 하기도 했다. 그들이 올려주는 매상이 고맙기보다는 우울하고 지치게 만드는 데 한몫을 했다. 개업 초기 얼마간은 당연히 적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무엇보다 사람 구경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다.

12시간 영업 중에 선곡하는 음악은 180여 곡, 손님의 신청곡보다는 대부분 내가 선곡한 음악들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음악이 백색소음처럼 들렸다.

어느 날은 처량 맞게 노래하는 가수의 음색이 손님 하나 없는 카페의 분위기와 나

무 잘 어울리는 게 싫어 중간에 끊어버린 적도 있었다. 초심을 잃어도 너무 일찍 잃어버린 것이다.

마음을 고쳐먹었다. 슬쩍 김추자의 <왜 아니 올까?>, 나훈아의 <찻집의 고독>을 틀어놓고 킁킁거렸다. 그런 나를 누군가가 훑쳐본다면 필시 손님이 너무 없는 까닭에 정신 줄 놓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내 생각은 둔감해졌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저 손 놓고 손님을 기다리기에는 마음이 조금했다. 길을 잘못 들어선 조난객의 심경으로 낙담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는 해야 했다.

시작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오픈 전에 읽었던 카페 관련 책을 다시 꺼냈다. 밀줄 처진 부분을 보니 이전에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많았다. 왠지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책을 샀다.

그렇게 나는 '카페 바흐와 주인장 타구치 마모루'를 만났다. 1968년부터 카페 사업을 해 온 그의 저서는 <카페를 100년간 이어가기 위해>였다. 그 책을 읽는 동안 카페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자책을 수도 없이 했다.

개업 몇 달 지난 시점에 손님이 없다며 실의에 젖어있는 사실이 코미디였다. 기울인 노력에 비해 거는 기대가 부끄러울 정도로 컸음도 알게 되었다.

그는 4~5년 단위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밑바탕 공부를 강조했다. 이를테면, 초기 4~5년은 고객 확보와 카페 홍보에 주력, 그다음 4~5년 동안 카페 만들기, 이후 4~5년은 인재를 키우고 조직을 구성하며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달하는 식이었다.

충격이었다. 아무리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카페를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했다. 세찬 폭풍우에도 굳건한 나무는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튼실한 줄기를 만

들며, 아래쪽에서 위를 향해 균형 있게 가지와 잎이 뻗어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내 급한 성격으로는 속 터질 일이 분명했다. 나만 그럴까? 아닐 것이다. 내 주변에 널려있는 소위 '치고 빠지는' 사업의 귀재들에게는 '카페 바흐' 경영이 한낱 실속 없는 짓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개업 첫날, 오픈 이벤트의 유혹에 찾아온 하루짜리 손님들과 지인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며 카페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 막대한 자금으로 시작한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고충보다는 늘 많아 보이는 손님만 눈에 들어와 카페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과 다를 게 없었다. 내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음악이라는 향수와 취미를 들고 거만하고도 무모하게 뛰어들 철부지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공식적이 아닌 나 혼자만의 재창업이었다. 그렇게 생긴 문구가 '100년을 이어갈 특별한 카페'이다. 단지 선전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100년이다. 언제까지 내가 경영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에게 경영권을 넘겨 카페가 이어지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또 누군가에게. 그리하여 건설한 나무로 100년을 굳게 서 있는 카페로 만들고 싶었다.

"창업보다 몇 배 어려운 것이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입니다."

타구치 마모루의 말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말이지만 내게는 비장함마저 불러일으킨 말이었다.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튼실하게 키울 생각에 설레는 날들을 보냈다. 여전히 손님이 없었지만 이전보다는 다른 생각으로 견뎌낼 수 있었다. 다른 카페와는 상관없이 나만의 철학과 소신, 경영 방침을 확고하게 고수하기로 했다.

그 무렵 윤종신의 <지친 하루>를 들었다. 노랫말이 좋았다. 내가 택한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걷는 주도성과 신

념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었다. 요즘에도 그 길을 걸으면서 지칠 때가 있다. 음악이야기 나무를 2년 4개월째 키우고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에 줄기가 상하기도 하고 나뭇잎이 떨어지기도 한다. 열매는 해결이 하듯 들쭉날쭉하다. 아직은 4~5년이 되지 않아서일 것이다. 100년 중에 이제 2년이다.

오늘은 왔다가 그냥 간 손님이 더 많은 날이다. 한 팀은 소주를 찾았다. 국산 맥주 없나는 익숙한 레퍼토리를 던지고 나간 커플. 어느 팀은 메뉴판에서 숨은 그림을 찾듯 멤버들 전원이 메뉴판을 계속 앞뒤로 돌려보더니 하나 둘 일어나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고는 서로 앞 다 튀어나가느라 스텝이 엉키기도 했다. 고마운 사람들이다. 직원 하나는 흐트러진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면서 70년대 후반에 히트했던 <왔다가 그냥 갑니다>를 뽕뽕 나게 부른다. 음치다. 웃음이 터진다.

나는 윤종신의 <지친 하루>를 듣는다. 김필과 박진언의 앙상블이 괜찮다. 전반부의 우울함보다 중반부의 신념을 외치는 노랫말이 좋다. 혼자 떠난 길에서 동무가 되어주는 노래 중 한 곡이다.

"거기까지라고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면 그렇지 하고 포기할 것 같아
잘한 거라 도약이면 왈칫 눈물이 날 것만 같아
발걸음은 잠시 쉬고 싶은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어 하나뿐인 걸
지금까지 내 꿈은
오늘 이 기분 때문에 모든 걸 되돌릴 수 없어
비교하지 마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옳은 길이라
옳은 길 따위는 없는 걸 내가 택한 이곳이
나의 길"



카페 '음악이야기' 대표DJ 이현웅
군산시 신지길 66(지곡동)
010-4104-7159

일본과 조국

지난 8월을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달아 오르게 했던 이슈라면 단연 '일본의 경제침략'과 '조국'일 것이다.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맞서 일본 정부와 아베총리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선 이후 백색국가 제외 등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이에 따른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과 전국민적으로 불붙은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안가기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과 대립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양국 간의 경제문제가 GSOMIA 종결 선언 등 안보문제까지 금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총리는 갈등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은 과거 나치에 가담하고 협력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어 엄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사죄와 반성의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사과는커녕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회유와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우리 자손과 다음세대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뜨거운 이슈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합의로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후보자 본인에 대한 청렴성, 도덕성, 정책능력이나 자질 등의 검증보다는 후

보자 자녀와 주변 인물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타도어 식 비난과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친일 잔재와 조상의 친일행위를 감추고 숨기려는 세력들에 의한 반 문재인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단지 '조국'이라는 한 사람이 세간의 이슈로 등장해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번지고 있지만 '조국' 한 사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문재인 정부 때리기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있다.

아무리 현 문재인 정부를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일본의 경제침략이라고 하는 국가적 난국 상황에서 중복 놀음에 빠져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는 행태나 이를 빌미로 조국 후보자를 깎아 내림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발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사례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굳이 역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탓에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친일 잔재와 그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단죄와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더 한층 발전된 나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움직이는가 여부에 따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에 대한 친일잔재에 대한 청산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군산시의원
수시탐포럼 사무처장
이복

누가 돌을 들었나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신명기 22장 22절).

예수 당시 어떤 여인이 간음현장에서 잡혀왔다. 유대교 율법에 의해서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간음 현장에서 왜 여자만 잡혀 왔을까? 상간남도 같은 처형을 당해야 하는데 말이다. 아마도 예수를 모함하기 위한 계략이 동원 되었을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정적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일이므로 어떤 남자 하나를 매수해서 정해진 시간에 들이닥치고 남자는 도망갔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을 선동해서 각자의 손에 돌을 쥐게 하고 즉결 처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 말 없이 예수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쓴다.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슬며시 돌을 내려놓고 돌아선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썼든, 너희도 같은 죄인이라고 썼든 그들은 그렇게 돌아갔다.

현실을 돌아보면 수많은 집단 중에서 돌을 들 자격(?)을 갖춘 무리들은 아마도 정치인들 뿐인 것 같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는 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는 사람들이 상대방은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간악한 범죄자들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린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지지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하고 결국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목적을 이루어 갈 뿐이다.

물론, sns를 통해서 매일 비난과 독설을 쏟아내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저들과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다. 다만 저들보다 의로운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정치인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기에 말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거짓을 사실로 만들어 유포해서는 안 된다.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의구심을 심어주고 점점 큰 의심을 갖도록 해서 결국 손에 돌을 들게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짓이다.

선량한 국민들 손에 돌을 들려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돌팔매를 진작 맞았어야 할 사람들이 어느 날 의인으로 변신해서 국민들의 손에 돌을 들려주고 팔짱을 낀 채 선동질을 멈추지 않는다.

돌을 들려주는 자 누구며, 돌을 든 자 누구인가!



수필가 / 청목하우징 대표 /
군산사료총판 진우상회
공동대표 / 시민·사회·
환경 운동가 남대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치솔질!

매거진 군산이 100호를 넘었습니다. 8년이 넘는 세월이네요. 군산 사람들의 이야기만으로 채워지는 월간지가 100호를 넘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각양각색의 사연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연들을 기자분들이 발굴하고 취재하신 노력도 대단합니다. 군산사람들 그리고 잡지 제작 관계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맥군 100호 발간을 지켜보며 나에게 있어서의 맥군에 대하여 생각해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군산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매달 발행되는 잡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좋았지요. 그리고, 8년이 넘는 세월동안 원고마감일에 원고작성을 겨우 마무리했다는 것이 저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차피 치과진료실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걸 마감일이 닥쳐서야 겨우 쓴다는 건 너무 게으른 것이지요. 변명을 하자면, 저는 월말이 다가오면 원고를 어떻게 쓸 것인지 머릿속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조금씩 살을 붙여나갑니다. 그리고 마감일이 되어서야 머릿속 그림이 완성되고, 완성된 원고를 컴퓨터 자판으로 옮겨 적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이번 달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인 것인지, 저의 성격 탓인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서 구상된 치과 칼럼은 원고마감일이 되어야만 컴퓨터 자판으로 출력이 됩니다. 마감일 전에는 출력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락을 걸어놓는 것인지... ㅏㅏ

100번이 넘게 맥군 치과칼럼을 쓰면서 제가 가장 반복하여 강조한 것은 바로 치솔질에 관해서입니다. 아마 30번 정도는 치솔질에 관해서 칼럼을 쓴 듯합니다. 사실 치과진료실에서 치솔질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치솔의 선택, 치약의 선택, 치솔질 방법, 치솔질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

등등.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치솔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개인소유의 칫솔이 있고, 그 칫솔로 매일 치솔질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거나, 알콜중독 등의 이유로 치솔질의 필요성을 망각했거나, 질풍노도 사춘기 반항심으로 치솔질하라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일부러 거역하는 청소년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예외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치솔질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제각각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닦은 분들도 있지만, 치솔질을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만큼 엉망으로 치솔질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치솔질이 부족한 분에게 '왜 이렇게 부족하게 치솔질을 하고 계시지요?' 질문을 드리면 "맞아요, 저는 치솔질을 대충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대답

하십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치솔질을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치치료를 많이 했고, 잇몸이 나빠져 있어서 치아관리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큼이나 치솔질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단골치과에 가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치아 상태가 나빠질 만큼 치아관리가 허술한 사람이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세월이 지나면 견잡을 수 없을 만큼 입안은 망가지게 될 테니까요.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항상 신선해요!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063_466_2875 fax.063_465_2922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군산에서도 원룸주택 등의 매매가격이 일반 아파트 가격에 비해 고가인 경우가 많아 매매에 따른 취득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 취득세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액을 조금만 초과하면 세금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해서다.

주택 매매거래의 경우 기존에는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를 적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과세하게 되면 이른바 '문턱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6억원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1%를 적용받지만 6억원을 조금만 초과하면 2%의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가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를 회피하고자 거래가격이 6억원이나 9억원을 소액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가격을 허위로 낮춰(일명 다툰 계약) 신고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을 100만원 단위로 적용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구간은 그대로 하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1.01~2.99%를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 했다.

주택 취득 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적으로 과세된다.

농특세는 0.2%가 일괄적으로 과세되고 지방교육세는 보통 취득세의 10%로 과세되는 식이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농특세는 면제된다.

예를 들어 7억원을 주고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세는 2%, 농특세는 면제, 지방교육세 0.2%, 총 2.2%의 세금을 부담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주택의 매매거래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상속이나 증여 등의 사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받는 세율이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2.8%를 적용하고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3.5%가 과세된다. 농특세나 지방교육세까지 고려하면 상속은 3.16%, 증여는 4%를 적용받게 되므로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매매로 취득하면 실제 매매가격을 과세표준대로 적용하는 반면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이때 통상적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기한은 유상 매매로 취득했거나 무상으로 증여받았거나 무관하게 적용받는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그 신고, 납부기한이 다르다.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즉, 상속세의 신고, 납부기한과 같다. 혹은 납부할 상속세가 없더라도 취득세는 이 기한 내에 꼭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경우는 유증을 하는 경우다. 보통 상속세에서는 유증도 상속과 똑같이 보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구분의 실익이 없다. 반면 취득세는 유증을 상속과는 구분해 증여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즉 피상속인이 유증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손자녀 등)에게 특정재산을 물려주는 특별유증을 한 경우 상속이 아닌 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재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만 한다.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슬로건이다. 올해는 19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자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공교롭게도 100주년에 다시 한 번 우리는 일본과 맞닥뜨린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자산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일 뿐’이며,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1910년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한일병합 문서에서도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00년이 넘는 장구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들의 생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늘 동일하다. 일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원칙 말이다.

이에 우리국민들은 “1919년에는 이기지 못했지만, 2019년에는 반드시 이긴다.”는 슬로건으로 한일 무역 분쟁에 반발하여 2019년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불매운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따른 반발이 주요한 원인이며, 일반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다는 뜻의 불매(不買)운동 뿐만 아니라 팔지 않는다는 뜻의 불매(不賣)까지 의미가 확장된 것과 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하지 말고 외교전에만 집중하라”라며 운동의 성격을 철저하게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확산해 가고 있다. 또한 일본 가지 않기로 운동도 활기를 띄고 있는데 한 해 일본 방문객 수는 750만명에 이르고 일본에서 소비하는 관광비만 해도 4조엔(우리나라 돈으로 42조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1인당 소비액은 대략 16만엔(148만원)에 이르는 관광을 절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가는 비행편수가 줄고 있고 일본 현지의 작은 관광도시는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본의 생각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고 전제해 것처럼 그들은 임진왜란에 정명가도(證明假道)의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하였으며, 한일병합의 시기에는 상호행복과 동양평화라는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생각을 잠시만 해 본다면 얼마나 심각한 배경이 있는지 금세 알 수 있다. 그것은 일본의 국가적 위기가 올 때 정한론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막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남는 사무라이들을 내전에서 외전으로 돌리려 일으킨 임진왜란, 서방 선진국과 동등하다는 우월감으로 우리나라와 동남아 정복을 펼치던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진주만 공격과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종전이 된 후, 현재는 일본 자국내 가장 큰 사고인 후쿠시마 원전의 위기를 외전으로 바꾸려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를 감추고, 원전 주변의 농수산물식품을 우리나라에 팔고 방사능 위험을 덮으려는 일본의 속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라는 장한 슬로건 앞에 나라 사랑하는 작은 실천꺼리 하나라도 더 챙겨야 할 일이다.

글 | 온승조(컬럼니스트)
gsforum@hanmail.net

근대역사박물관, 생활 영상기록물에 가치를 더하다

- 지역향토역사 자료구축을 위해 영상기록물 수집 -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종합박물관으로 개관8년차를 맞이하여 근대역사 전문박물관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 군산지역 아날로그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각 가정의 장롱이나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등의 다양한 아날로그 기록물 발굴·수집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자료수집은 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기록물을 수집하여 디지털 자료 변환을 통해 근·현대 영상자료로 기록보존하고 기록문화 전시자료로 활용하여 소멸되고 있는 귀중한 생활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보존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아날로그 영상기록물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발굴·수집됨으로써 지역사 연구자료로 활용되게 할 계획이며, 향후 박물관의 전문 지역사 연구기능 강화와 복합 문화공간으로의 영역 확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8월말부터 10월말까지이며, 수집자료는 1990년대 이전자료로 비디오테이프와 캠코더테이프 등 영상 기록물 위주로 수집하며, 일상생활과 가정의례(생일잔치, 성인식, 혼례, 장례 등), 그리고 기타 각종 기념행사를 담은 영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수집절차로는 시민이 전화 또는 방문으로 자료제공의사를 밝히면 담당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지고, 자료제공시에 저작물 이용동의서와 인수증서를 교부받게 된다. 이후 내용과 상태가 적합하지 검토하여 적합 자료일 경우에는 디지털 자료로 변환 작업을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변환 작업을 마치면 자료 제공자에게 디지털 변환자료를 전달할 계획으로 제공자가 원본자료를 박물관에 기증할 의사가 있으면 기증 증서를 교부하고 전자자료로 보존·활용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많은 아날로그 영상기록물이 무관심과 물리적인 이유로 망실·변형되는 가운데 추진하는 생활 영상기록물의 체계적 디지털화 작업은 박물관의 역사연구기관으로서 기능 확장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는 아날로그 기록물은 그 시대상을 대변하는 귀중한 향토사 자료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체계적인 수집·보존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이 박물관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많은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번 수집에 참여함으로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문화PEOPLE』 ‘개복동 거리예술제’ 준비



거리예술제 (거리무용)



거리예술제 (패션쇼)

군산시민예술촌(박양기 촌장)은 개복동 중정길(예술인의 거리)에서 10월 5일(토) 오후 2시~6시까지 진행되는 ‘개복동 거리예술제’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과 함께 『군산문화PEOPLE』을 결속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군산문화PEOPLE』은 개복동 거리예술제를 위하여 모인 다양한 분야(국악, 연극, 미술, 음악 등)로 구성된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개복동(예술인의 거리)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계획하여 침체되어 있는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동하는 거리로 재탄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거리예술제를 위하여 모인 『군산문화PEOPLE』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거리예술제답게 무대가 정해지지 않은 거리에서 다양한 공연과 퍼포먼스 그리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체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복동 거리예술제’는 군산 시간여행축제 기간(10월 4일~6일)중 10월 5일(토) 오후 2시~6시까지 군산시민예술촌 부근(개복동 중정길)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진행될 예정이며 시간여행축제와는 또 다른 이색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계획, 준비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미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거리예술제 (아트마켓)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www.gsartzone.kr

청소년상상셀러, 지역에서 달그락거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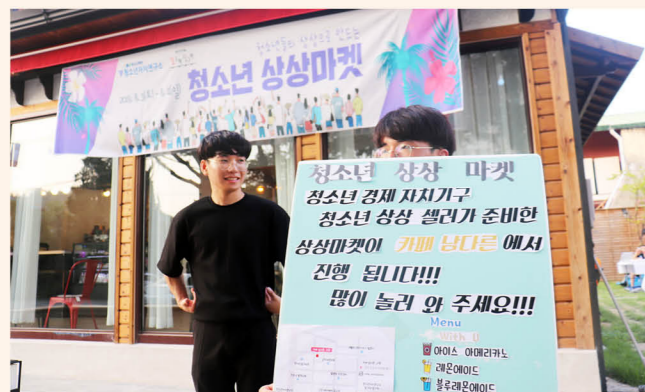
2019년 8월3일 토요일, 경제자치기구인 청소년상상셀러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커피 머신과 오븐을 나르고 한쪽에선 거스름돈을 세고, 또 이 모습을 촬영하는 청소년들. 3개월 준비한 청소년상상마켓이 열리는 날이다. 상상셀러 청소년들이 지역의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요리사분들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고 연습과 실습, 회의를 반복하며 준비한 활동이다. 청소년자치활동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 관점의 경제활동으로 마켓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소년상상마켓을 한지도 어느덧 4년째가 되어간다.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그리고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포스터 홍보도 진행되었고, 마켓 운영 공간을 위한 협의 과정을 통해 드디어 마켓이 열렸다.



청소년들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청소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의 카페 대표님과 협조하여 카페 공간에서 마켓이 열렸다. 군산을 찾아온 관광객, 군산 시민, 달그락 위원과 자원활동가, 달그락활동 청소년의 가족과 지인들이 마켓을 찾아주었다. 그간 청소년들이 연습하고 실습한 파스타와 피클, 커피와 레몬에이드, 쿠키를 선보였다. 특별히 이벤트도 진행되었는데 평소 가족 간에 알지 못한 서로의 생각을 맞춰보는 이벤트와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문구를 전달하는 이벤트를 참여하는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번 마켓 활동을 통해 시민 분들, 특히 부모님도 오셔서 저희들의 활동을 직접 보시고 전보다 더 응원해주셨어요."라며 달그락 경제자치기구 윤정선 대표 청소년이 말했다.

청소년들이 경제활동 준비과정을 거치며 경영 과정을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활동 과정 가운데 청소년 간에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고 존중하고 서로 돕는 문화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를 찾고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시도하며 지역사회에 점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들 간 운영한 마켓의 수익금은 청소년들의 논의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요리,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의 진로체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데 지원하기로 하였다. 청소년상상셀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함께 참여하고, 꾸준히 자치활동에 힘쓸 것이다.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달그락 달그락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 성장 가능성 높은 '스릴러'와 '손편지 축제'

- 스릴러 페스티벌, 중·고 청소년 해방구로 정착
- 손편지 축제, 엄마와 어린이들의 잔치 가능성

군산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스릴러 페스티벌'과 '손편지 축제'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가성비와 성장 가능성 높은 골목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월 31일 군산시민예술촌이 군산근대역사거리 (구)조선은행(군산근대건축관)뒤 백년광장에서 연 '2019 스릴러 페스티벌'에는 약 3천여명으로 추산되는 학생 청소년이 몰려 한 여름 밤의 낭만을 만끽했다. 또 8월 30일과 31일 군산우체국 주변 거리에서 '추억'과 '편지'를 주제로 열린 제2회 군산시간여행 손편지 축제에도 엄마들과 함께 어린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새로운 원도심 문화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동안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 손편지 축제에는 35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으며, 청소년들의 열정과 함성으로 뜨겁게 달구진 스릴러의 경우 19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 반면 행사의 규모나 프로그램의 완성도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이다. 스릴러의 경우 '스릴러 체험', '공포 분장체험', '퍼포먼스', '호러 포토존' 등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 냈다. 이 축제의 핵심인 좀비와 귀신 분장은 SBS뷰티스쿨의 협력으로 진행되었고, 블러드 프로젝트, 마술사 문태현, 팝페라 빅맨스어즈, 댄스팀 달하, 태권도 시범단 K타이거즈, 보컬 성윤기, 래퍼 이진범 등이 청소년들과 함께 했다. 1년 뒤 전승되는 일명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쓴 참여자들에게 칠보공예 마을의 편지 등 8개 체험 중 두 가지를 체험하도록 만든 기획력이 돋보였다. 참가한 이주연씨(미장초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손편지의 추억을 알려주었고, 2시간을 기다려 칠보 공예를 체험하는 추억을 만들었다."면서,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스릴러 페스티벌은 참여한 청소년들이 분장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한 상황이 아쉬웠으며, 손편지 축제의 경우 참여 빈도가 높았던 어린이와 엄마들의 눈 높이와 다른 성인 위주의 공연이 부족한 점으로 꼽혔다.



■ 군산시 토목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교육

군산시는 지난 8월 30일 토목직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업무 전문성 확보와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자세와 공직가치'를 주제로한 제1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토목직 공무원 90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매월 1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난달 30일 실시했으며 토목직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업무 전문성 확보와 지식 및 기술을 함양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민선7기 시정비전인 '시민과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건설'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공무원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자세와 공직가치, 인허가 업무 협업, 국가예산 발굴, 설계기법 및 신기술 적용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박인수 안전건설국장은 "토목직 공무원은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과 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을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 군산시, 성적향상 학생대상 장학금 지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군산시 12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50명에게 성적향상 장학금을 지원한다. 성적향상 장학금 지원은 장학 수혜 대상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집중된 것을 보완하고 성적이 향상된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장학 사업이다. 수혜 대상은 2학년 1학기 전교 성적이 1학년 2학기 성적과 비교하여 전교석차 백분율 10%이상 향상자 중 향상도가 가장 뛰어난 학생이다. 지난 7일부터 각 학교별로 장학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26일까지 12개교 모두 접수했고 성적향상 장학금은 오는 9월 중 지급 예정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1인당 30만원씩 모두 4500만원이 지급된다. 강임준 이사장은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장학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적향상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학 지원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치고 날아오를 수 있는 교육 기반마련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시, 지역 제수용품 구매 활성화 캠페인

군산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8월 30일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우리 농식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이른 추석이라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요처 발굴이 필요한 만큼 군산상공회의소와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에서도 공동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 이날 캠페인은 양파, 마늘 등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소비 진작 활동으로 내고장 상품 구매 홍보, 우리 지역 농특산물 홍보물 등을 배부했으며, 이번 캠페인이 농업인들에게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자 실시했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은 "상공회의소와 군산시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함께 추석 공동 캠페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업과 농업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맞아 소중한 분들에게 우리 지역 농식품으로 마음을 전하기를 바라며, 지역산품을 적극 애용하여 우리 농업인들에게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군산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군산시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0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 8월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54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통리장과 합동으로 조사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의 거주 여부에 대한 것으로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의 경우 사실조사에 근거하여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된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직접 세대를 방문해 진행되는 이번 사실조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공설시장, 전국 최초 전자가격표시시스템 도입

- 원산지 가격표시 강화로 고객신뢰 확보

군산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군산공설시장 상인회, ㈜에이텍에이피와 29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전자가격표시기(ESL) 도입을 위한 상생 지원식을 가졌다. 전자가격표시기(electronic shelf label)는 중앙모니터링 서버를 구축해 중간단말기를 통해 각 점포에 정보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가격과 제품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기술이다. 군산공설시장에 설치되는 전자가격표시기(ESL) 시스템은 상인회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각 점포에 자동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판매 제품 가격 변동과 원산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상생지원 판매패 정비가 되어 있는 20개 점포, 200개 상품에 대해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군산시는 공설시장 상인회와 협하여 전자가격표시기(ESL) 시스템 상인교육을 통해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한희선 센터장은 "가격 및 원산지 표



기는 전국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인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며 "군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군산공설시장청년물 옥상영화제 개최

군산공설시장청년물 옥상영화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인 군산'이라는 주제로 30일부터 31일까지 군산공설시장 4층 옥상에서 개최된다. 이번 옥상영화제에서는 군산 독립예술영화 6편과 전주독립영화제 초청작 1편, 해외특별영화 1편이 2일간 상영될 예정이며 군산지역 예감예술단(1318행복센터 청소년), 놀거리프로젝트(7080공연)의 공연, 편안한 안락의자,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맥주파티 등 옥상공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앉아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군산공설시장 청년물 청년상인의 다양한 음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이틀째인 31일은 '8월의 크리스마스인 군산'이라는 주제로 댄스메들리 파티와 예감예술단(군산 1318행복센터 청소년 공연팀), 놀거리프로젝트(7080 성인공연팀)의 공연과 SNS를 이용한 영화 관람 인증샷 선물 이벤트 등 시민 참여 행사가 진행된다. 해롤드 래미스 감독의 1993년도 작품인 멜로코미디 영화 '사랑의 블랙홀'의 상영과 함께 액션영화 '한 겨울 밤의 꿈'(감독 정재훈, 2018작)과 호러영화 '리메인'(감독 조미혜, 2018작)등이 상영된다.

■ 군산시청 시민갤러리 무료 대관

군산시가 군산시청 2층에 시민갤러리를 설치해 무료로 대관하고 있다. 시민갤러리 신청대상은 지역 내 예술작가, 동호회, 시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수강생 등으로 1주일 단위로 대관신청 할 수 있고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18:00까지 가능하며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시에서는 대관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예약접수시스템을 구축했고 군산시청홈페이지(소통참여-통합예약관리시스템)에서 전시3개월전, 매달 1일부터 선착순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시민갤러리가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근한 문화예술 만남의 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앞으로 개인, 단체, 협의 등에서 시민갤러리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갤러리 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이는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총무계(063-454-2235)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호원대학교 K-POP 학과 행복나눔콘서트 군산 예술의전당	어린이뮤지컬 피터팬 군산 예술의전당	전라북도공연예술페 스타. 손윤숙이마고 발레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목요국악예술무대 군산 예술의전당	전라북도공연예술페 스타. 창작뮤지컬 '달빛 아리랑' 전라북도공연예술페 스타. 광대를 품은 왕 전라북도공연예술페 스타. 전라도 천년의 춤 명무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어린이뮤지컬 사라가 꿈! 군산 예술의전당	
01	02	03	04	05	06	07
새만금 국제 피아노 음악제 군산 예술의전당	전라북도공연예술페 스타. 고음불가는 무 슨) 고음잘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라북도공연예술페 스타. 최선중 '꽃길' 전라북도공연예술페 스타. 견우와 직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08	09	10	11	12	13	14
전라북도공연예술페 스타. 들어주세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한여름밤의 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15	16	17	18	19	20	21
	제10회 뮤직페스티벌 군산 예술의전당	제10회 뮤직페스티벌 군산 예술의전당	전북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019 전국 탑10 가요쇼 녹화 군산 예술의전당	전북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만9900원의 행복 유리상자콘서트 피아니스트 양성원 리사이틀 & 해설 장일범 프로젝트 슈퍼히어로 '육상놀장' 3부 : 계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2	23	24	25	26	27	28
아름다운 가사 콘서트(아가콘) 군산 예술의전당	전북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곰뱅이 텃다 군산농악놀이 군산 예술의전당		9월 하우스콘서트 허니보이스의 좋은 형제 군산 예술의전당	춤추는 그림자 군산 예술의전당	숲 앙상블 정기 음악회 군산 예술의전당	연극 언니! 이거 나만 불편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29	30					
희망 사랑 기쁨을 나누는 행복음악회 군산 예술의전당						



전시

군산예술의전당

환경미술협회 정기전
2019-08-30 ~ 2019-09-05
한중 교류전
2019-09-20 ~ 2019-09-26

제29회 월명서화학회전
2019-09-07 ~ 2019-09-11
이새봄 개인전시회
2019-09-27 ~ 2019-09-30

은파아트스페이스(카페베네 은파호수점)

고정희-양평강 작품전
2019-09-09 ~ 2019-10-2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06.20(목)~09.22(일) 이매진 존재론-음악보다 아름다운 사람
08.23(금)~09.22(일) 청년작가 공간기획展 '엄수현 - 우리 모두의 기억'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쌍천로 82-13(개정동)
(063) 452-4075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월명로 514(신흥동)
(063) 445-9331

삼성애육원
군산시 구영2길 1-2(신창동)
(063) 445-5947

일맥원
군산시 석치2길 14(문화동)
(063) 462-2385

신광모자원
군산시 부곡로 19(나운동)
(063) 462-7749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한밭1길 35(나운동)
(063) 461-8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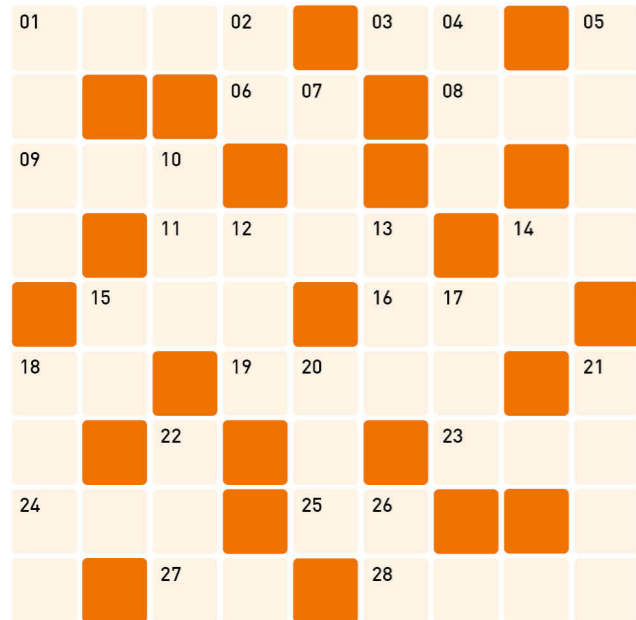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현면 남군산로 332-45
(063) 466-6088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길 101-7
(063) 464-994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3길 37(산북동)
(063) 466-7981

낱말 실력도 늘고, 상품도 받고

즐거운 크로스워드 퍼즐 98



<제97호 퍼즐 정답>

인	천	사	천
입 산 수 도 일 희 일 비			
추 인 교 차 로 야 유			
해 구 질 포 화			
총 혈 키 스			
사 제 응 터 울			
여 정 세 모 시 통 소			
벌 거 송 이 오 매 불 망			
리 레 리 통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446-1856 E-mail. 282pyk@hanmail.net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은 4페이지 협찬업체 참조

▶ 가로 열쇠

- 01 동동 얼러주고 싶은 재롱스러운 아기.
- 03 몸이 오슬오슬 춡고 떨리는 증상.
- 06 좋지 못한 인연.
- 08 관광 따위를 안내하는 사람. 길잡이.
- 09 행동이나 사고방식 따위가 너무 엉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11 더할 수 없이 높고 순수함.
- 14 김을 매거나 감자, 고구마 따위를 칼 때 쓰는 쇠로 만든 작은 농기구.
- 15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
- 16 대를 쪼갠 조각.
- 18 제주도의 옛 이름.
- 19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일.
- 23 신심(信心)이 없이 입으로만 외는 헛된 엄불. 실천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나 말.
- 24 음악을 중심으로 한 종합 무대 예술. 가극.
- 25 목적인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 27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춤. 또는 그 춤.
- 28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 세로 열쇠

- 01 엉너리를 부리어 얼굴에 남을 속여 넘기는 모양. 이번 일은 ㅇ링ㅇ땅 넘어가지 않겠다.
- 02 악기를 사용하여 연주하는 음악.
- 04 음력 8월15일. 추석.
- 05 비름과의 한해살이 풀. 가을철에 닭의 볏 모양의 꽃줄기에 빨강, 노랑, 흰색 따위의 꽃이 핀.
- 07 두 나무의 가지가 맞닿아서 결이 서로 통한 것. 화목한 부부나 남녀 사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0 나무나 물건 따위가 꺾이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데.
- 12 개와 더불어 반려동물로 사랑받는 동물. 쥐를 잘 잡는다.
- 13 돼지를 삶은 국물에 순대를 넣고 끓인 국.
- 14 쇠뿔의 양쪽이 길이나 크기가 같다는 뜻으로,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역량이 비슷함을 이르는 말.
- 15 도둑이나 죄인을 묶을 때 쓰던, 붉고 굵은 줄.
- 17 돌이나 벽돌 따위를 쌓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 18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 20 음식점, 여관 따위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남자.
- 21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 22 조선 시대에, 도둑·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장안 안팎을 순찰하던 군졸.
- 26 사람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어 넣음.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당신의 구독이 군산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MAGAZINE
GunSan
매거진군산 구독신청서

군산의 문화와 언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매거진군산은 100호까지 무료로 발행이 되었으며 101호부터 유료로 배포가 됩니다. 본 CMS 출금이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매달 잡지를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063)446-1856 해주시거나 혹은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jay0810@hanmail.net

보내주시면 됩니다.

■ 출금이체서

수납기관 및 요금종류

· 수납기관명 : ICM(아이씨엠) · 대표자 : 이진우 · 사업장 주소 :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 사업자등록번호 : 401-05-33000 · 수납 요금종류 : 구독료 납부

매거진군산 구독(7,000원 /월)

매거진군산 + 새군산신문 구독(10,000원 /월)

■ 구독받으실 주소

· 출금계좌 예금주명 :

· 예금주 생년월일 :

계좌 예금주가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금융기관명 :

· 출금 계좌번호 :

· 예금주 연락처(휴대전화)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 신청인명 :

· 예금주와의 관계 :

· 신청인 연락처(휴대전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일상이 되다 습관이 되다 행복이 되다

평소대로 쓸 뿐인데 자동저축 효과
체크카드 결제 자투리 저축
나의 목표달성을 도와주는
Daily 절약 재테크 저축



은행 방문없이 **비대면** 첫거래 가능

- (1) QR코드로 비대면 실명확인서비스를 통해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개설
- (2) KDB Hi 비대면 입출금통장 개설 후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가입



KDB산업은행

데일리플러스 자유적금



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제외) 1인 1계좌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가입기간 1년~3년(연 단위)

납입금액 월 100만원 이내 자유적립식

※상기 이율은 2019.6.25 자 세전 기준이며, 시장금리 동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www.kdb.c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결 제 2019-07-005호(2019.07.01 - 2020.06.29)